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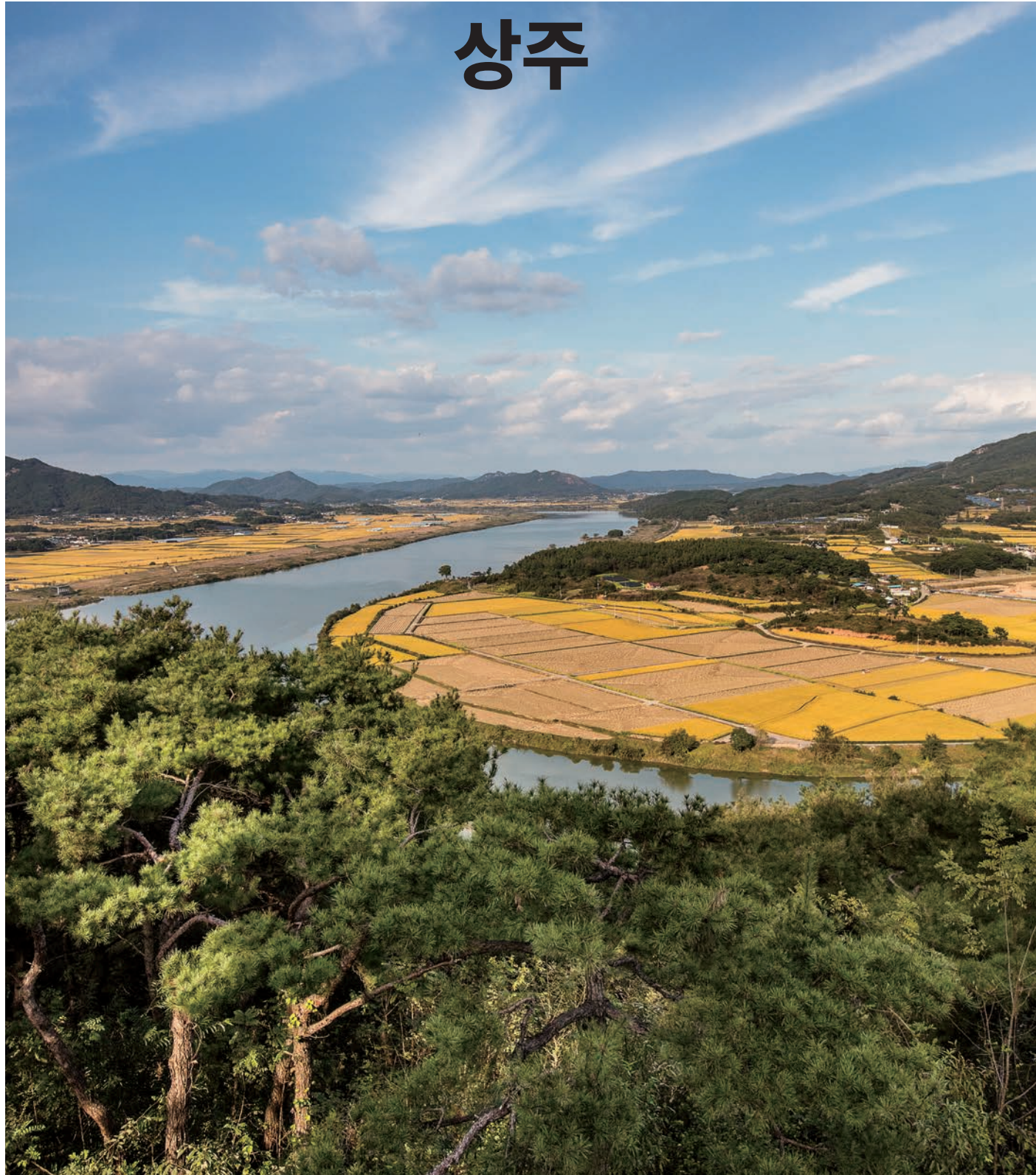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3.11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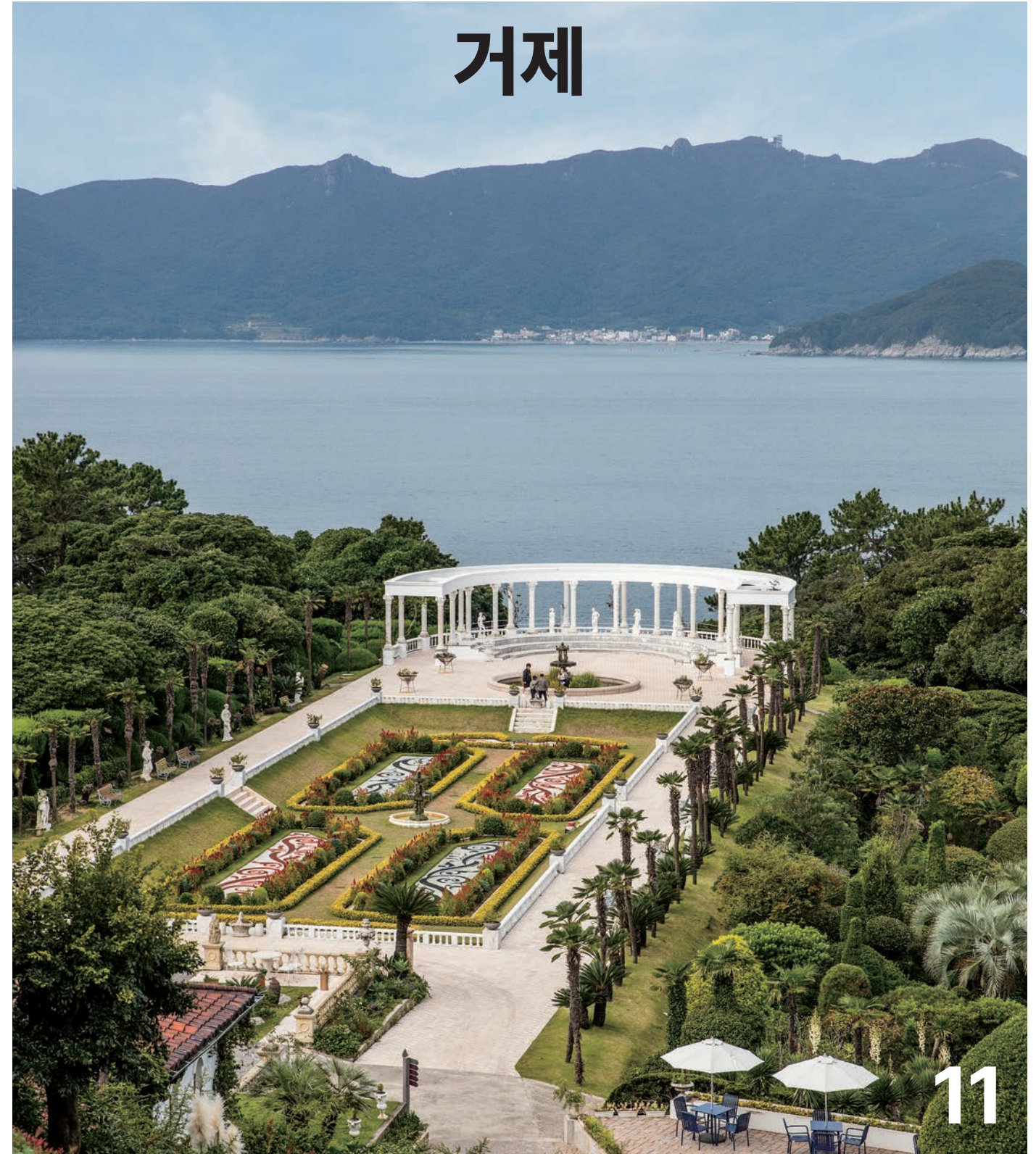
유유히 흐르는 산과 강의 매력

02-799-9175
11월 11일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제



쪽빛 물결과 섬이 들려준 이야기, 거제 | 대구 군위에서 보낸 가을 방학 | 오래되고도 새로운, 서울 궁궐 즐기기

CONTENTS

2023.11

036 테마 여행 거제

하늘과 바다가 마음껏 푸른 날 경남 거제에 닿았다. 셋바람소리길을 지나 구조라진성에 올라 마을과 항구를 굽어보고, 쪽빛 바다를 건너 이국적인 외도 보타니아의 풍경을 맞닥뜨렸다. 기적과 소망을 품은 장승포항은 따뜻한 안녕을 건네 왔다.



powered by how

h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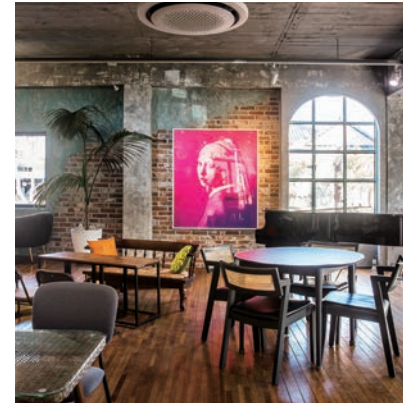
심 없이 움직이는 세계에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까요?

사람, 국가 및 경제가 번영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화수소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운영을 최적화했습니다. 아람코는 운영 센터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시장 간 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 계획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현장 운영을 관리하며, 공급 일정을 계획합니다. 아람코 팀은 헌신과 추진력으로 99.8%*라는 업계 최고의 공급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에너지 공급 기업이 되었는지 aramco.com/powerdbyhow에서 알아보세요.

2023.11



008

세계 도시 이야기

거친 바위산, 물빛 고운 호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하타에서 대자연을 만난다.

010

잡학 사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프응TV' '태웅이네' 등 유쾌하고 유익한 청년 농튜브 채널을 모았다.

018

맛집 탐방

수도권 전철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사이, 소박한 한 끼를 선사하는 식당 세 곳을 다녀왔다.

028

에디터 자유 여행

덕수궁 돈덕전, 경복궁 계조당이 다시 들어섰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매력, 서울 궁궐로 떠난다.

054

이 계절 이 여행

오색빛 산과 너른 강을 찾아 경북 상주로 간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처럼 마음도 느긋했다.

062

기차 타고

생태 여행 코스 '내추럴 대구'로 군위를 둘러봤다. 방학처럼 한가롭고 달콤한 시간이었다.

068

촬영지 여행

역동적인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한 광주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투영하는 거울 같은 도시다.

074

문화 돋보기

영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영화를 사랑하는가. 이 철학적 질문에 응답한 영화들을 살펴봤다.



KORAIL INFORMATION

090

코레일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우유에 진심을 담다”

우유는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아100%
체세포수 1등급·세균수 1A



들어가는 글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해 주리라 생각한 단어가 ‘아쉽다’예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모자라거나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 말을 쓰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헤어지기 싫어도 아쉽다고 하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쉽다 말하고요. 고유한 정서가 묻어나 외국어로 번역하기 힘든 따뜻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11월호 ‘테마 여행’ 취재차 경남 거제에 다녀왔는데, 사랑하는 단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거제의 바다를 마주하고 ‘쪽빛’이란 단어가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더라고요. 파랑다는 말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만큼 질푸른 물결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윤슬이 반짝이는 장면이 너무나 적확해서 평생 간직할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취재를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는 아름다운 쪽빛 물결을 한동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사랑하는 단어를 늘려가는 소중한 11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KTX매거진> 기자 옥송이

KTX

바로 지금, 여행
NOVEMBER 2023

2023년 11월호 제20권 제11호 통권 제233호
2023년 11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AHILO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The 17th Geoje Island Flower Festival

꽃으로 그린 섬

제 17회

거제

꽃 축제

축제

2023. 10. 28.(토) ~ 11. 5.(일)

거제시농업개발원

거제시



자연의 기적, 하타

바위산은 거침없는 선을 그리고, 너른 호수는 물빛이 굽디굽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하타에서 자연 속으로 파고든다.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 등 7개 토후국이 연합해 이룬 나라다. 두바이 도심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하타는 대자연의 만끽하는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하타' 지명 사인이 '세계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사인'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막 위의 기적 두바이. 지명에서 특정한 단어가 곧바로 연상되는 건 여행지로서 행운이겠다. 수많은 도시가 여행객을 유혹하려 고유의 이미지와 대표 장소, 랜드마크를 홍보한다. 모래뿐이던 땅을 마천루가 줄지어 선 도시로 단시간에 변화시킨 두바이는 세계인에게 기적 같은 인공 도시, 첨단 도시의 상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현대건축의 전시장이 되어 미래박물관 등 새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디자인이나 친환경 기술이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사막에 들어선 쇼핑몰, 럭셔리 리조트와 호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대표 이미지'가 두바이의 전부 아니다. 놀랍게도 두바이 하타는 산과 물, 대 자연을 만끽하는 곳이다. 바위산을 뜻하는 하자르산맥은 붉은색과 회색 암석으로 이루어졌다. 사방이 온통 바위. 제각기 솟은 강인한 선의 봉우리가 중첩된 산은 세상의 끝에 선 듯 강렬한 감흥을 선사한다. 여행자는 잘 조성된 하이킹 트레일을 걸거나 자전거를 빌려 52킬로미터 코스를 누비고, 쏟아지는 별빛 아래 바위산의 장관을 누리기 위해 장비를 챙겨 방문하는 캠핑족도 늘고 있다. 하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액티비티가 카약이다. 높은 봉우리 사이에 댐을 조성해 생긴 호수에서 한가로이 노를 젓는 경험은 물이 귀한 이 나라에선 드문 호사다. 과거 두바이 생활상을 보여주는 하타 헤리티지 빌리지도 흥미롭다.

두바이는 지금부터가 여행 적기다. 겨울 평균기온이 15도에서 27도로 쾌적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또한 다채로운 모습을 지녔는지 새삼 깨닫는다. 여행은 즐거움 구경이고 일상을 벗어난 휴식인 동시에 지구 구축구석을 알고 체험하며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다. 인공 도시 이상의 두바이, 지구의 대자연이 하타에 있다. **K**

자료 협조 두바이관광청

Panasonic

11월 이벤트

파나소닉 안마의자 Sale FESTA

구매고객 최대 300만원 할인



연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ale FESTA

- 기간 : 2023.11.01~2023.11.30



2 구강세정기 증정 이벤트

- MAK1 제품 구매고객,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EW1613 선착순 증정 - 2023.11.01~2023.11.30



대한 치과의사협회 공식추천제품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잘한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M프라자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중앙프라자 (051)255-0222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북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라자 (064)757-8452 제주도 구남동 | 파나소닉 칠안프라자 (041)522-8452 칠안시 송남동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입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8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 백화점 인천 5층 (010)5571-53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현대 백화점 옥동 8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 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81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내가 바로 소년 농부



태웅이네 | 🔍

어린 나이부터 농사에 정성을 쏟으며 대농의 꿈을 키워 온 스무 살 한태웅 씨의 유튜브 채널이다. 모내기, 논 애벌하기, 썰레질 등 벼농사를 지어 '태웅미'를 길러 내는 과정이 주 콘텐츠다. 물론 고추, 감자, 들깨, 배추 등 다른 농작물도 재배한다. 고된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은 노동요다. 끼가 많아 트로트 등 노래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데, 실력이 수준급이다. 퇴비 살포법, 트랙터 운전법 등 농사를 주제로 한 영상에서 전문가의 노하우가 느껴진다. 수확한 쌀을 기부하기도 한다.

꿀벌과 함께



프응TV | 🔍

토종 꿀벌을 괴롭히는 말벌을 잡아 소탕하는 영상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 받았다. 부산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면서 꿀벌의 생태와 채밀 과정을 자세하게 촬영한다. 버려진 스피커로 벌통 만들기, 호주산 벌통에서 토종벌 키우기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와 토종꿀과 설탕 꿀 구분하는 법 등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가 인기다. 한국을 넘어 카자흐스탄, 베트남, 일본 등 해외로 나가 다양한 꿀을 맛보고 양봉법을 공부한다. 유쾌하고 센스 넘치는 자막 덕분에 양봉 지식이 없어도 자꾸만 보게 된다.

나는 청년 농부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유익하고 유쾌한 청년 농튜브 채널을 모았다.

소와 같이 산다



동갑내기 영농일기 | 🔍

동갑내기 농부 부부가 내기를 한다. "비료 세 포대 저기까지 옮기면 밭에 뿌리는 건 당신이 다 한다고 약속했다?" 아내 천혜린 씨가 60킬로그램에 달하는 비료를 번쩍 들어 옮기고, 남편 신승재 씨가 다급히 그 뒤를 쫓아간다. 2020년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가 된 이들은 스물두 살에 결혼해 충북 괴산 축사 옆에 살림을 꾸린 뒤, 현재 아들 둘과 100마리 넘는 소를 함께 키우는 중이다. 여물을 직접 만드는 과정부터 인공수정하기, 출산 돕기 등 축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제작한다.

시골 개와 전원 일기



농장 알바생 지씨 | 🔍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 농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를 돕던 20대 자매가 자신들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 업로드한 것이 채널의 시초다. 어느 날 오이 밭에 우연히 굴러들어 온 유기견 골드와 리치를 기르게 되고, 그 후 정식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애호박·오이·고구마 등 친숙한 작물은 기본, 롱빈·사탕무 등 열대작물이나 꽃도 심어 키우고 수확한다. 농업 기술, 농업 경영 관련 강의를 찾아 수강하는 등 초보 농부로서 열의를 불태운다. 자매와 개 두 마리의 일상이 활기차다.



3,000만원대 스위트 선착순 한정 모집 중!!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위트 타입 분양 상품을 한정 모집**한다. 스위트 타입의 신규 상품은 입회금 일시불 납부 시 분양가 할인 혜택과 회원 앞으로 즉시 100% 반환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직후 바로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신규혜택을 회원의 취향에 맞추어 퍼스널라이징 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는 타업체와 차별화된 정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회원 전담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신규혜택 중 종합 혜택 선택시 전국 16곳의 소노호텔앤리조트를 2년동안 객실을 회원요금의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회원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오션월드, 승마, 골프, 스키 등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레저와 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무료 및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및 손비처리 가능성이 가능하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측은 "회원권 구입 후 사용하면서 성수기 리조트 예약이나 다양한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고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안내 자료와 카탈로그를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가을밤을 건너는 법

기나긴 어둠이 찾아오는 때, 가을밤의 여행자를 위한 책과 음악, 장소와 유희를 제안한다.

Autumn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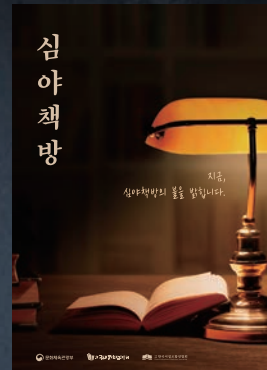


어둠을 밝히는 장소



11월의 오후 6시는 해가 이미 저물고 어둠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걸음을 재촉해 환한 빛을 따라간다. '2023 대한민국 밤밤곡곡 캔들라이트 순회 콘서트'는 따스한 촛불을 켜 채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을 펼치는 이벤트다. 지난 10월 강원도 강릉·인천·부산·대전에서 진행한 행사는 11월 4일 경남 진주·전북 전주, 11월 11일 경남 통영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일곱 곳을 거치며 긴 밤을 형형하게 밝힌다. 그런가 하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2023년 심야책방'은 11월에 이르러 대단원을 맞이한다. 폐점 시간을 연장하고, 서점별 특색이 드러나는 근사하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야행성 애서가를 설레게 한다.

문의 feverup.com/ko/seoul/bambamgokgok(대한민국 밤밤곡곡) www.kfob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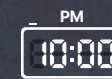
달빛처럼 속살거리는 음악



흑건을 닮은 이 밤,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장 마르크 루이사다의 피아노 독주 앨범 <오늘 밤 영화관에서(Au Cinema Ce Soir)>에 귀 기울여 본다. <달콤한 인생> <용서받지 못한 자> <연인들> <맨해튼> 등 선율을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영화 사운드트랙을 섬세하면서도 편안하게 표현해 냈다. 트랙 중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아다지에도'는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가 편곡한 버전으로 들려 준다.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땐 선과 영의 <밤과낮>을 배경음악처럼 내내 틀어 두어도 좋겠다. 다정한 기타 반주와 달콤한 목소리가 마음을 간질이는 '달을 삼킨 밤', '새벽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가사로 운을 떼는 인상적인 타이틀곡 '밤과낮' 등 이 밤에 바친 듯한 열한 곡의 노래가 두 귀를, 마음을 간질인다.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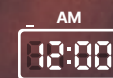
밤과 문장들



"기차 안에서 보낸 2박 3일, 그리고 엘렉트리치카라고 불리는 낡은 전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들과 더불어 나는 출다, 출다, 출다고 중얼거렸고 안드레이는 심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로, 설원은 설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장욱 작가의 산문집 <영혼의 물질적인 밤>은 우리를 눈 깜짝할 새 열차의 창가석에 데려다 놓는다. 덜컹거리는 객차와 낡은 침대, 도서관과 해변, 슈퍼마켓과 성당... 여행의 감각을 환기하는 단어와 문장을 천천히 훑다 보니, 어느새 불안과 정념이 사그라든 맨 얼굴의 밤과 만나게 된다. 이 여정에 술을 더하면 어떨까. "인생 최초의 위스키 패스포트는 내게 지리산의 겨울밤이다. 낯선 이들과 따스히 함께 했던." 정지아 작가의 음주 예찬 에세이집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는 호호한 알코올 기운으로 어둠을 몽근하게 데운다.



Book



이 밤에 건배를



대리 만족에서 그치기 어려운 애주가에게 밤의 서정으로 빛어 낸 한국 술을 권한다. 오나이릭 브루어리가 선보인 프리미엄 전통주 '우주술' 시리즈는 충남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증류주에 담가 오랜 시간 침출한 제품이다. 산뜻한 맛, 흐드러지는 향이 은하수를 닮은 오묘한 질감과 잘 어울려진다. '선셋' '오로라' '미드나잇' 세 증류를 마련했으니 골라 마시는 즐거움도 누리다. 강원도 흥천 찻살, 단호박, 누룩을 원료로 빚은 탁주 '만강에 비친 달'과 약주 '동몽'은 모두 전통주조 예술에서 양조했다. 은은한 달콤함과 감칠맛이 빼어나 가벼운 야식을 안주 삼는다면 풍미를 극대화해 즐길 수 있다. 이름과 맛에 모두 밝기운이 어른거린다.

Drink





02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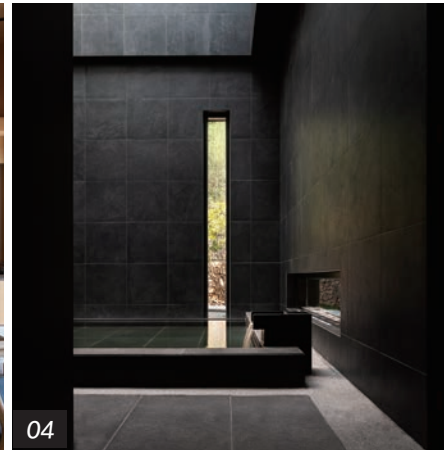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노천탕 03.객실 04.실내탕
05.객실 정원 06.카페 07.만이 차림
08.만물(충북의 화반) 09.숙회(오늘의 제철 숙회)
10.운새미로 11.알천 : 한우 구이와 한방 수비드
삼겹살 12.조식 : 13첩 반상



03



04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사가 17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36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05



06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1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07



08



09



10



11



12

온전한 휴식의 정점

유원재의 식사는
오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요소로 구성되어,
온천욕과 자연으로 비워낸 여백을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 온전한 휴식의 여정의 정점입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이 녹아든 균형 잡힌 요리는
시각의 아름다움과 미각의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NOBEL WAR



Peace PLEASE

전쟁은 전설로, 무기는 박물관으로

“옛날에 선조들은 전쟁이란 걸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쟁이 전설이 되는 날을,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고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도 꿈꾸었을까.

1994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었다. 세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을 듯 증오와 테러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라빈 총리가 말했다. 전쟁에서 숨진 모든 국가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갖고 평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이후 약 30년. 분쟁은 여전히 다. 비극은 계속된다. 올해까지 104번째 평화상 수상자가 나오기도 평화란 멀고 어렵다. 엄밀히 따져, 노벨상 제정부터 전쟁과 관련이 깊다.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해 엄청난 부를 쌓은 알프레드 노벨이 재산의 94퍼센트를 기증해 상을 만들었다. 다이내마이트로 기차길을 놓아 세계를 연결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일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는 이를 손쉬운 대량 학살 도구로 삼았다. 물론 싸우고자 하는 이에게는 무엇이든 무기가 된다. 노벨이 생리학·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등 다섯 개 분야를 정확히 집어서 말한 사실을 볼 때 평화라는 단어 앞에 죄책감, 적어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상이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리라는 기대 또한.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상에는 수차례 논란이 따랐다. 베트남전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등 평화상 수상자 자격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대의 지성인 과학 분야 수상자의 업적은 마치 노벨의 다이내마이트처럼 인류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암모니아 합성법을 발명, 화학비료를 제조해 식량 생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1918년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프리츠 하버

는 독가스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의 학살에 쓰인 독가스가 그의 발명품이다. 1945년 화학상 수상자 오토 한이 발견한 핵분열 원리는 핵폭탄을 낳았고,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펜이라는 무기를 든 작가도 있다. 나치군의 노르웨이 진격을 환영하고 나중에 히틀러 추도사까지 쓴 1920년 문학상 수상자 크누트 함순, 유고 내전 당시 ‘인종 청소’를 자행한 밀로셰비치 편에 서서 옹호한 2019년 수상자 페터 한트케다. 다행히 이는 일부일 뿐 생명과 양심을 외치는 수상자도 많다. 2021년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얼마 전 역대 노벨상 수상자 48명의 서명을 모은 서한을 발표했다. 수신인은 세계의 역만장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어린이를 돕는 일에 1억 달러(약 1356억 원)를 기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무라토프 자신 역시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아 낙찰될 수익금 1억 350만 달러(약 1403억 5600만 원)를 기부했다. 무기는 더 센 무기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전쟁은 무조건 손해이며 당장 멈추겠다는 결단만이 필요하다. 모든 전쟁이 문학과 전설 속에만 남기를. 문학상 수상자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처럼 ‘무기여, 잘 있거라.’



풍경에서 상상하라



상주의 그림같은 풍경이 당신에게 특별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태원 그 집에서 만나요



수도권 전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으로 뻗은 화려하고 이국적인 거리.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이 동네에서 변함없이 따뜻하고 정직한 한 끼를 선사하는 식당 세 곳을 소개한다.

NOVEMBER



☞ 후무스 단호박 샐러드 1만 4500원, 두부 시저 랩 1만 2000원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17 2층 ☎ 02-749-1981



플랜트



플랜트_싱그러운 채소에 병아리콩 푸레와 구운 단호박을 얹은 '후무스 단호박 샐러드', 두부·크루통·양파 링에 캐슈너트 시저 드레싱을 뿌리고 토르티야로 돌돌 싼 '두부 시저 랩', 바나나·땅콩버터·스피룰리나·두유·치아시드를 한데 갈아 카카오 님스를 토핑한 '파워 그린 스무디'까지. 이렇게나 예쁘고 맛있고 배부른 채식이라면 날마다 먹고 싶다. 더 이상 비건 메뉴가 새롭지 않은 시대지만, '플랜트'가 이태원에 들어선 2013년 당시만 해도 베지테리언 식당은 낯설기만 했다. "좌석이 열두 개밖에 안 돼 손님들이 테이블을 공유해야 했던 첫 매장에서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 친구가 되었지요." 외국에서 유년을 보낸 이미파 대표는 일찍이 비건의 삶을 선택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서울에 이식하고 전파한 채식주의 선구자다. 문화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이태원은 플랜트의 건강한 정신을 빠르게 흡수했고, 플랜트는 채식을 향한 관심을 기반으로 쑥쑥 성장했다. 팬데믹 기간엔 2주 동안 문을 닫는 위기가 닥치기도 했으나, 응원과 지지를 보내 준 팀원과 단골손님이 있어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 "곧 새로운 겨울 특별 메뉴를 출시할 거예요. 호박 파이를 비롯한 추수감사절 디저트의 따스한 맛을 기대해 주세요." 이 달콤한 추천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TRAVEL TIP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은 이주민과 소수자의 문화 다양성, 현대 예술의 전위성이 혼재하며 공존하는 희귀한 장소다. 특별한 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많은 이가 이곳을 떠올리는 이유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역 주변은 '기억과 안전의 길'로 탈바꿈해 추모와 애도를 이어 간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회복과 도약을 준비하는 이 동네를 방문해 보시길. 발길 닿는 대로 거니는 동안 근사한 식당, 남다른 공간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미파 대표가 추천하는 이태원 미식 공간
비건으로서, 비건 음료를 마련한 공간을 자주 물색합니다. 용산구청 뒷골목에 자리한 '리조트 커피'의 오프 밀크 라테를 사랑해요.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도 좋지요.





리뷰 대표가 추천하는 이태원 미식 공간
 햇살 좋은 오후, '한남작업실'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흑임자 케이크를 곁들이곤 해요. 업무를 마친 뒤엔 '라핀부쉬'에서 샤르퀴트리를 안주 삼아 와인 마시는 걸 즐깁니다.

사랑의 불고기 담담한 맛이 밴 평양냉면을 젓가락으로 집은 뒤, 간이 세지 않아 자꾸 손이 가는 서울식 불고기 한 점을 올려 한입에 우물거린다. 아, 서울과 평양의 만남이 이토록 사랑스럽다. '사랑의 불고기'라는 상호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순간이다. 경북 안동의 농장에서 무항생제 인증 한우를 직접 공수해 사과와 파인애플 양념으로 여덟 시간가량 숙성, 조리한 불고기는 국적과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이가 즐겨 찾는 이곳의 대표 메뉴다. "소박하지만 편안하고 정갈하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근엔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손님 층이 한결 다양해졌고, '마켓컬리'가 선정한 불고기 맛집 여덟 곳'에 꼽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요.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남동에서 다이닝 공간 '카인드'와 이자카야 '마인드' 등을 운영하며 동네의 번천사를 지켜본 류상엽 대표는 자신의 여덟 번째 사업장인 이곳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녁에 방문해 테라스에 앉아 녹두전 한 점에 화이트 와인을 홀짝이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한우 불고기를 주문해 레드 와인 과 페어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히 와인과 한식이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시대의 우래옥'이 되고 싶다는 그의 목표가 머지않은 날에 이루어지기를.



☞ 한우 불고기(150그램) 3만 5000원, 한우 평양냉면 1만 3500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가길 26-1 ☎ 02-798-3313



사랑의 불고기



☞ 7나물 한 그릇 1만 6000원, 황성 산골 더덕 & 표고 새송이구이 2만 1000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가길 26-5 ☎ 02-792-2022



빠르크 _한남동이 조용한 동네였던 2013년 4월, 한식집 '빠르크'가 문을 열었다. 밥과 국과 반찬을 한데 차려 내는 검박하고 정갈한 반상이 큰 사랑을 받았다. 세월이 흘러 간판을 'HAPPY 10th ANNIVERSARY!(10주년 축하)'라고 바꾸어 단 빠르크는 올해 꼭 열 살이 됐다. "서울 토박이로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온 단골 식당을 볼 때면 제가 이 도시의 일부라는 소속감과 함께 안도감이 들곤 해요. '백년식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굳건한 빠르크가 자랑스럽습니다." 박모과 대표의 감회다. 요리 멘토인 엄마의 레시피를 전수해 좋은 재료로 집밥 같은 한국 음식을 선보이겠다는 것은 그의 오랜 원칙이자 포부다. "한식을 다룬 나라 음식과 비교해 가장 특별한 메뉴가 무엇이나 물으면 저는 늘 나물이라 답합니다. 국토 7할이 산지인 나라에서 1년 내내 채소를 먹기 위해 말리고 불리고 지지고 볶는 그 모든 행위가 감동적이잖아요." 나물 일곱 가지를 일일이 손질하고 조리해 한 그릇에 담아 낸 '7나물 한 그릇'은 빠르크의 자부심이다. 베스트셀러인 '블랙 앵거스 LA갈비구이'와 '황성 산골 더덕 & 표고 새송이구이'도 조리 과정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 박 대표에 따르면, "손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구현 가능한 맛"이 있어서란다. 정성 어린 반상이 가와 지질 막걸리 한 잔. 지친 몸과 마음이 뜨끈하게 누그러지겠다.

박모과 대표가 추천하는 이태원 미식공간
 오랜 세월 드나들며 단골이 된 인도 음식점 '타지 팰리스'의 버터 치킨과 팔락 파니르를 좋아합니다. 정통 타이 레스토랑 '마나오'는 최근에 즐겨 찾는 공간으로, 다채로운 품미가 매력적입니다.



프로모션

쇼콜라티에의 손길이 닿은 초콜릿, 카카오리퍼블릭

올가을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카카오리퍼블릭이 선보인 네 가지 수제 초콜릿 세트가 계절처럼 깊고 감미로운 맛을 선사한다.

먼 옛날 멕시코에서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빈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신성한 의식을 치를 때마다 어김없이 음용하곤 했다. 대항해시대에 이르러 유럽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카카오 빈은 탐험가들로 하여금 험난한 여정을 버티게 하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했다. 매혹적인 맛, 신비로운 힘을 지닌 초콜릿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한 선물로 자리매김해 왔다. 탄탄한 제조 기반과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춘 초콜릿 전문 기업 씨앤지의 프리미엄 브랜드 카카오리퍼블릭이 가을을 맞아 선물용 수제 초콜릿 세트 4종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앞서 출시해 큰 인기를 모은 베스트셀러 '네티플레저 16구'를 한층 다양한 재료와 품미로 업그레이드한 '네티플레저 20구', 질 좋은 원재료의 조화로운 맛이 인상적인 스틱형 초콜릿 '벨기에초콜릿 스틱', 분홍색 하트 모양 초콜릿이 눈길을 끄는 '벨기에 스위트하트 8구·16구'다.



OEM 대신 직접 제조 방식을 채택한 카카오리퍼블릭은 HACCP 인증 초콜릿 전용 제조 시설을 갖췄다. 벨기에에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수석 쇼콜라티에가 직접 레시피를 설계하고, 원료 선별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제조 과정 전체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한 차원 높은 미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카카오리퍼블릭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 해를 돌아보는 늦가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에게 카카오리퍼블릭의 수제 초콜릿 세트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 볼 때다.

EVENT

카카오리퍼블릭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전 제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초코헬스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12월 31일까지
 문의 02-791-0756, chocohealth.co.kr(초코헬스몰), smartstore.naver.com/chocohealth(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식회사 씨앤지
 2017년 설립한 주식회사 씨앤지는 초콜릿 원재료인 양질의 카카오 빈을 페루 등 현지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 로스팅부터 초콜릿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빈투초콜릿(Bean to Chocolate)' 방식을 갖췄다. 단백질 강화 초코볼, 무설탕 스테비아 초콜릿, 공정무역 빈투초콜릿 등을 출시해 한국 초콜릿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 cngcorp.co.kr



촉촉한 달걀고추장과 바삭한 튀김옷의 조화

HEYROO_순살치킨덕템 **3.5점**

남혜림 '치킨은 뼈를 발라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의점에서 이 상품을 만나면 정말 '득템'한 기분이었어요. 순살이라 집어 먹기 편하고, 고기도 실합니다. 맥주 한 캔 준비 완료! ★★★★★ / 김현정 겉의 바삭함이 치킨의 필수 요소라면 이 제품은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한다... 2900원으로 가격이 제일 예쁘네요. 물에 빠진 닭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껍데기를 벗겨 삶아 먹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쓰다 보니 그럴듯한데? 초고추장 찍어서 먹어야지. ★★ / 강은주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제품명 한번 마음에 든다. 순살이라 간편하고, 치킨이니 맛있고, 득템해서 행복하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식감이 쫄깃하니 먹을 만하다. 추천 주종은 에일 맥주. ★★★★★ / 옥송이 평등(조리가 끝났다는 알림 소리)~ 손님, 치킨 시키셨죠? 냉동 치킨을 기계로 소생시켰으니 한 입 가득 넣는다. 와, 걸바속속. 맥주와 함께하니 여기가 호프집. 닭고기가 국산이 아니기에 호불호는 갈리겠다. ★★★★★

2.6점 더본코리아_마늘겨자 훈제삼겹살

남혜림 마늘 소스를 선호하지 않아 제권이 제품의 냄새가 공포였어요... 알싸하고 달콤한 것이, 소스에 마늘과 겨자를 듬뿍 넣은 듯합니다. 삼겹살이라기보다 베이컨 같은 돼지고기도 아쉽네요. 술을 마셔도 없어지지 않는 마늘 향이 ★★ / 김현정 훈제라선지 고기 색이 낫설어 음식에 겁 많은 나는 또 겁부터 먹었다. (이 정도면 '에디터 체험기' 때문에 겁을 하도 먹어서 배부를 지경...) 맛은 나름 반전. 역시 고기는 고기라 기본은 한다. 소스가 달아서 고기를 설탕에 '찍먹' 하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 / 강은주 훈연한 삼겹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금 기름진 편이다. 그제 마냥 싫다는 건 아니다. 깔끔한 고도주 한 잔 털어 넣어 기름을 씻어 내리는 쾌감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마늘 겨자 소스와 궁합이 영 나쁘지는 않다. ★★★★★ / 옥송이 지나치게 느끼하다. 그래, 소스를 곁들이면 어울리겠거니 생각했으나 이마저도 입에 맞지 않는다. 겨자 향이 투머치. 다만 막걸리와는 잘 어울릴 듯. ★★



느끼함 잡는 알싸한 마늘 겨자 소스가 핵심

안주는 맛있다

입동이 찾아왔다. 점점 길어지는 밤을 함께할 안주를 맛본다.



두부를 겹겹이 쌓아 만든 두부강정

풀무원_식물성지구식단 결이 다른 큐브강정 달콤소이 **3.8점**

남혜림 비건 도전에 282345번째 실패하고 있는 남혜림... 안주라도 비건 제품으로 먹을 수 있다면 기꺼이 구매하겠습니다. 입안에서 두부 결이 느껴지는 게 가장 신기했어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야 하니, 기계가 없는 분은 불편하실 듯합니다. ★★★★★ / 김현정 오오, 결이 살아 있네! 닭고기 '퍽퍽살'파인 내게 그저 빛 같은 존재. 두부로 이렇게 알찬 식감을 만들어 내다니 칭찬합니다. 튀김옷 없는 버전 출시 기원 1일 차. 같이 줄 서실 분 구해요. ★★★★★ / 강은주 고단백 안주가 반갑다. 샐러드에 토핑해서 먹어도 든든한 한 끼가 되겠다. 곁들이고 싶은 술은... 으깬 민트를 잔뜩 투하해 향긋함을 극대화한 모히토! ★★ / 옥송이 사랑에 빠졌다. 먹자마자 쇼핑 앱 장바구니에 담았다. 두부를 좋아하는 데다 가벼운 안주를 즐겨 찾는 나를 위해 태어난 거니? 두부라고 하지 않으면 치킨 너겟으로 착각할 정도다. 맥주가 술술 들어간다. 최근 먹은 튀김 중 최고의 맛. ★★★★★

4.4점 대상_양심선언 간편 양꼬치 프란맛

남혜림 양꼬치에는 무조건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하나면 어떤 종류의 맥주라도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프란 가루를 따로 동봉한 센스에 감동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아니, 최고 아닙니다. 저만 먹을 거예요. 최고 아니라니까요! ★★★★★ / 김현정 역시 또 겁 때문에 인생 최초로 만난 양꼬치다.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린 뒤 후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 덕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 상태에서 먹은 양꼬치. 저는 이걸 장조림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 / 강은주 두둥, 기획 의도에 가장 충실한 메뉴가 등장했다. 풍미와 질감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소맥과 영혼의 짝궁일 거라 예상하지만, 드라이한 레드 와인과도 맛보고 싶다. 재구매 의사 200퍼센트. ★★★★★ / 옥송이 양 없이 못 삽니다. 주기적으로 먹어 줘야 합니다. 오죽하면 양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는 저에게 이 제품은 그저 사랑... 프란 시즈닝까지 '갯벽'합니다. 양꼬치 한 입에 맥주로 입가심하니 개운~. ★★★★★



육즙 가득한 양꼬치와 프란 시즈닝이 찰떡궁합

Hang out with Yeongju

영주행 행복행 함께행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영주행 열차에 탑승하세요!

선비의 품격과 어우러지는 소백산 자락이 유려하게 이어진, 천혜의 비경과 산 위로 둘러진 구름의 신비한 품에 안긴, '영주시'는 ktx 신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고 특별한 명소로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바로가기

2023 영주 영주알뜰쇼핑관광

여행경비 지원받고 영주 여행 떠나자!

- 신청기간 2023. 10. 20(금)~12. 15(금)
- 지원혜택
- [개인] 영수증 총합 기준금액 이상 제출자
 - 10만원 이상 제출자 - 1만원
 - 20만원 이상 제출자 - 2만원
 - 30만원 이상 제출자 - 3만원
- [단체]
 - 미니버스(8명 이상) 20만원
 - 관광버스(20명 이상) 60만원

2023 청년 영주여행 공모전

청년이 직접 만드는 영주 여행 코스! 여행경비 지원받고 자유롭게 떠나는 영주여행!

- 모집인원 70팀 이내
- 지원자격
 - 영주시 관외 거주자(신분증 사본 제출)
 - 영주시 혹은 여행, 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 모집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34세)
-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지원 가능
- 지원사항 여행경비 지원
 - 1인팀 20만원, 2인팀 30만원, 3인팀 이상 40만원

2023 영주 홍보단 모집

영주행! 행복행! 영주를 널리 알릴 홍보단 모집행!

- 모집인원 10명 이내
- 지원자격
 - 영주시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 SNS 활발히 운영하며 월 3건이상 기사작성 가능자
- 활동기간 2023. 11. 1(수)~12. 22(금)
- 활동내용
 - 영주시 쇼핑관광 사업 및 문화·관광·축제소개
 - 현장취재를 통해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전파
- 모집기간 2023. 10. 16(월)~10. 26(목)

문의처: 054-630-8708

창원에 닿은 당신에게

꽃향기 나는 빵, 지역 상징을 수놓은 의류 등 경남 창원의 매력을 담은 먹거리와 기념품이 꼭 여행길의 선물 같다.

창원

1

(진해제과) 벚꽃빵 봄 하면 벚꽃, 벚꽃 하면 진해다. 분홍색 꽃이 만개할 즈음이면 진해군향제를 즐기려는 사람으로 도시가 북적인다. 그 분위기를 미각으로 느끼고 싶은 이를 위해 진해제과가 개발한 빵이다. 벚꽃을 잘 묘사한 생김새도 인상적인데, 벚꽃 향이 나는 분홍 앙금까지 넣었다. 전자레인지에 15초간 데우니 꽃향기가 더욱 진하다. 벚꽃크림치즈타르트 등 신메뉴도 출시했다. 문의 055-546-3131



2

(어거스트 램) 마창진 디퓨저 향기와 함께 각인된 것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 있다. 창원에서의 기억을 디퓨저로 간직한다. 종류는 무학산의 청량함이 연상되는 '무학', 창원의 감성적인 밤을 담은 'CITY', 진해 벚꽃과 따스함을 주제로 한 '경화'다. 주인장이 지역 특성을 살려 디자인한 캐릭터는 창원 연고 야구팀 NC다이노스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문의 @august_lamb_masa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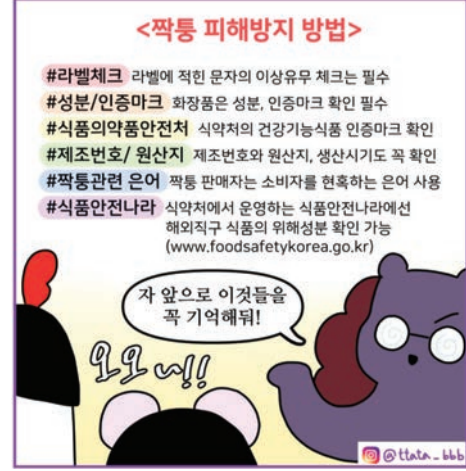
(맑은내일 와이너리) 단감명작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단감을 원물 그대로 분쇄해 화이트 와인을 빚었다. 1945년 작은 정미소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창원에서 주류를 제조했다는 맑은내일 와이너리가 선보이는 단감명작. 지난 세월 쌓은 노하우에 아삭하고 달금하기로 유명한 창녕 단감을 더했다. 부드러운 단맛과 약간의 산미가 특징. 깊어 가는 가을밤, 간단한 안주를 곁들이니 세상 부러울 것 없다. 문의 @good_tomorrow.official



(마사나이) 1980~1990년대 마산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옛 도시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 창원·마산·진해의 지명과 사투리, 특산물 등 지역의 상징물로 의류와 생활용품을 디자인하는 로컬 브랜드다. 마른 멸치, 아귀를 옷에 페인팅하거나 마산을 한자로 적어 디자인한 모자 등이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합한 자수 모자는 물론, 안감이 따뜻한 후드 티도 인기다. 문의 @masanai_works



4



* 짝퉁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위조상품을 말합니다. 나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 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과 함께하는 지재권 존중문화 캠페인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짝퉁 없는 안전한 가을 여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



ROYAL PALACES

경복궁

1395년 창건, 백악산을 배경으로 광화문-흥례문-근정문-근정전이 이어지는 웅장한 구조

창덕궁

1405년 이궁으로 건설, 전각과 후원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창경궁

1483년 대비 세 분을 모시는 궁궐로 건립, 명정전은 5대 궁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덕수궁

1897년 선포한 대한제국의 황궁, 전통 양식과 서양식 건축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



가을날 궁궐의 초대

덕수궁엔 돈덕전이, 경복궁엔 계조당이 다시 들어섰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매력, 서울의 궁궐로 떠난다.



덕수궁



조선의 왕,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을 꾀하러 건립한 돈덕전. 대한제국의 영빈관이 돌아왔다.

고종의 꿈이 담긴 전각 돈덕전이 올가을 문을 열었다. 19세기 말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심한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라의 심장이라 할 궁궐에 서양식 건물을 지음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1895년 단발령을 내렸을 때 백성의 반응을 생각하면 양식 건물 신축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500년 역사를 지닌 찬란한 나라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고, 고종은 대한제국을 자립 가능한 중립 국가로서 세계에 인식시키고자 했다.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는 1902년에 각국 인사를 초대해 대형 예식을 열기로 계획하고 돈덕전을 지었다. 그들에게 대한제국의 건재함을 보여야 하는 만큼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건물이었다.

예식은 콜레라가 유행하는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물마저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현재 덕수궁에 남은 석조전보다 이른 시기에 건축한 데다 대한제국과 고종의 절절한 기원을 품었다는 역사성을 가려 재건한 돈덕전은 옛 사진을 고증한 외관부터 눈에 띈다. 붉은 벽돌과 민트색 장식이 어우러진 벽에 원뿔형 지붕이며 테라스가 아름답다. 내부는 즉위 40주년 기념 청경 예식을 상상해 재현한 미디어아트, 대한제국의 외교와 과거의 돈덕전을 알려 주는 전시 등으로 채웠다. 고풍스러운 가구로 꾸민 자료 열람실과 휴게실은 편안히 시간을 보내기도, 사진을 찍기도 좋다. 대한제국의 꿈을 12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만난다.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에서다.



덕수궁에서 한 발짝 더



경희궁공원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을 20여 분 걸으면 경희궁이 나온다. 고종 시절 덕수궁과 경희궁은 흥교라는 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광해군이 창건한 궁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당 부분 훼손되어 원래의 위용을 잃었으나, 인왕산을 배경으로 선 승정문과 승정전의 장엄함은 여전하다. 지형을 살려 층층이 올라선 전각의 기와지붕이 저 멀리 현대의 도시와 한눈에 들어오는 장면도 경희궁을 둘러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덕수궁에서 이견 꼭



한국 전통 양식 건축과 서양식 건축이 공존하는 풍경은 덕수궁만의 매력이다. 낮에도 좋지만 조명이 켜지는 밤의 궁궐은 일부러 찾아가 감상할 만큼 아름답다. 석조전은 침실·거실·서재 등을 복원해 놓았으며, 석조전 서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개방한다. 현재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장욱진의 <가장 진지한 고백>전을 개최하고 있다.

경복궁



세종은 세자가 나라에 빛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계조당을 지었다. 재건한 계조당이 문을 열었다.

조선의 역사는 길다. 500년 세월 동안 궁궐이 같은 모습이었을 리 없다. 정치 공간이자 생활공간은 필요에 따라 건물을 짓고 허물고 변형해 사용해 왔다. 올가을부터 관람객을 맞은 계조당은 세종이 후에 문종이 되는 세자를 위해 1443년 건립했다. 세자 출신이 아닌 세종은 개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번영을 이끌면서 아마도 후계를 제대로 준비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학문에 힘쓰되 현실 정치를 알고 잘 적응하기를, 신하에게 존중받는 존재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계조당에서 세자는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사신을 접견했으며 생일 축하 예식을 벌였다. '계조(繼照)'라는 이름처럼 세종의 빛을 이어 성군으로 성장해 나갔다. 문종의 유지를 받든 단종이 건물을 허물었고 조선 후기에 고종이 재건한다. <고종실록>에서는 "세종대왕 때에 가장 융성하였다"라는 고종의 전교와 함께 계조당을 언급한다. 그토록 오래된 이야기를 가져올 만큼 고종도 절실했던 듯하다. 애써 지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건물을 이번에 새로 올렸다. 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맞추는 등 전체 과정을 장인이 손으로 수행했다. 단청 작업을 하려면 나무가 말라야 하기에 아직 나뭇결 그대로인 현판도 달기 전이다. 지금은 '신축' 느낌이 강하지만, 자연 재료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세월을 머금겠다.

경복궁에서 이끈 꼭



경복궁에는 보물로 지정된 굴뚝이 무려 2개다. 연기를 빼는 그 굴뚝이 왜 문화재인지 자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궐에 들어온 여인은 외출이 지극히 어려웠고, 여인의 공간을 '꽃 단장'해 마음을 달랬다. 수놓은 듯한 담장부터 마루의 난간 장식까지 자경전은 어여쁘다. 굴뚝에도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을 새겼다. 일대 전체가 작품 같은 이곳에선 어떻게 찍어도 인생 사진이 나온다.



경복궁에서 한 발짝 더



국립민속박물관

궁궐이 왕가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면 바로 옆 국립민속박물관은 백성의 삶을 알려 준다. 농사를 짓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감정을 담고 다듬이질을 한 선조의 하루하루가 손에 잡힐 듯 펼쳐진다. 대청마루에 앉아 대형 미디어아트 속 마을의 1년을 감상하는 시간이 하이라이트. 새 지지귀고 꽃비 날리다 귀뚜라미 울고 눈 내리는 영상이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을 안긴다.



동궐로 떠나는 여행



경복궁 동쪽의 창덕궁과 창경궁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동궐이라 묶어 불렀다. 계절을 완상하기 좋은 궁궐이다.



창덕궁

한국에서 가을에 어디를 갈지 물을 때 첫손에 꼽을 만한 장소다. 숲과 정자, 연못의 어울림이 감탄을 자아내는 후원 덕분에 창덕궁이 더욱 빛난다. 수많은 왕과 왕족이 살았던 만큼 영조가 과거 시험을 주관한 곳, 정조가 신하들과 채치 어린 문답을 나눈 곳, 효명세자가 책을 읽은 곳 등 이야기가 생생히 전한다. 궁궐 입구 금천교는 1411년에 놓고 지금껏 한자리를 지켜 왔다. 태종 이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왕이 이 다리를 건넜다 생각하니 왠지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감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이라도 모를 것이다.



창덕궁에서 한 발짝 더,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소리가 주는 위안. 한옥 박물관에서 전통 소리를 듣는다. 눈 매는 소리, 열치잡이 노래, 세상을 떠난 이를 보내는 노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하나하나가 어찌나 다정한지 심신이 스르르 풀어진다. "아침 비는 해님 눈물, 저녁 비는 달님 눈물, 우리 얘기 잘도 잔다".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창밖으로는 창덕궁이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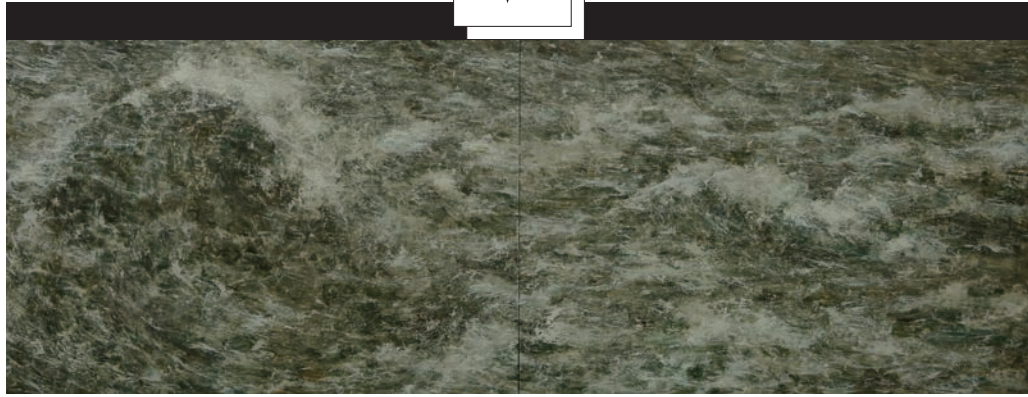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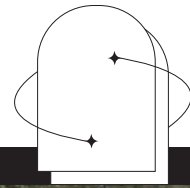
창경궁

세종이 왕실의 어린신인 대비 세 분을 모시려 건립한 궁은 건물 배치도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다. 통명전 옆 언덕에 서면 아래로는 궁궐 전각이, 멀리로는 남산서울타워가 함께 들어오는데 한양에서 출발한 대도시 서울을 사랑하게 하는 풍경이다. 후원에는 연못 춘당지와 나무가 조화롭고, 이 땅 최초의 서양식 온실도 사진기를 켜게 한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다 1616년 다시 지은 홍화문은 5대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 의미가 깊다. 덕수궁과 더불어 상시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창경궁에서 한 발짝 더, 종묘

일제가 끊어 놓은 창경궁과 종묘 연결 공사를 지난해 여름 마쳐, 두 소중한 공간이 이어졌다.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는 엄숙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정문 밖이 곧바로 복잡한 종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위엄 어린 건물과 우거진 숲이 대도시의 바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사색의 시간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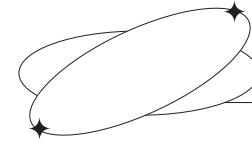
• EXHIBIT •

<파란, 일으키다>

부산 10.04~11.19

한국 현대미술이 바다를 이야기한다. 강요배, 방정아, 유혜숙을 포함한 열 명의 작가가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1주년 기획 전시를 회화, 미디어, 설치 등 25점으로 채웠다. 작품은 바다와 인류의 관계를 모색해 공존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을 점으로 표현한 김종학의 8미터 대작 '바다', 프로젝션 매핑 기법으로 바다를 재현한 허병찬의 'Particle Wave-기계생물' 등이 관객을 예술이라는 망망대해로 이끈다.

장소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문의 051-309-1900



• FESTIVAL •

2023 단단단페스티벌

강릉 11.08~11

강원도 전통문화 공연으로 강릉이 들썩인다. '단단단'은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으뜸 축제라는 뜻이다. 올해는 '놀이꾼들 도담도담'이 해설을 곁들여 진행되는 탈춤 공연, 강릉시 어린이 1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사물놀이·난타 등을 무대에 올리는 어린이전통연희한마당 등으로 풍성하게 채웠다. 전 공연을 무료로 진행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긴다.

장소 강원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남대천 행사장 문의 033-641-1593



• SHOW •

<고집쟁이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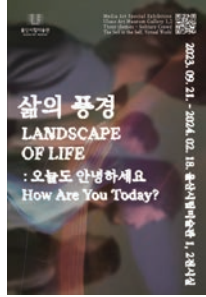
서울 11.08~12

로맨틱 코미디 발레극 <고집쟁이 딸>을 전 영국 로열발레단 예술감독 프레더릭 애슈턴 버전으로 선보인다. 엄마 시몬은 딸 리즈를 부잣집 아들 알랭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리즈는 자신이 사랑하는 콜라스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리즈와 콜라스가 리분을 가지고 춤추는 파니 엘슬러 파드되, 시몬의 나막신 춤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문의 1668-1352



what's up



• EXHIBIT •

<삶의 풍경: 오늘도 안녕하세요>

● 울산 ● 09.21~2024.02.18

현대인의 일상과 고민을 예술로 해석한 특별전이다.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미디어아트 등 40점을 전시한다. 인간관계의 복합성 등 공동체의 고민부터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까지, 익숙한 일상에 상상을 불어넣어 작품으로 보여 준다.

장소 울산시립미술관
문의 052-229-8426



• FESTIVAL •

981 역사 바당

● 서귀포 ● 10.04~11.30

은빛 역사와 제주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든다. 역사와 푸른 남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이 나온다. 9.81파크에서 축제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가을 맛 수제 크림 찹쌀 도넛, 아삭 애플 시나몬,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도 준비했다.

장소 9.81파크 제주
문의 1833-9810



• SHOW •

<마리 퀴리>

● 서울 ● 11.24~2024.02.18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진출한 창작 뮤지컬이 3년 만에 한국 무대에 돌아왔다. 여성 이민자라는 편견 속에서도 여성 최초로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시즌에는 자신의 연구가 초래한 비극에 당면한 그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한다.

장소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문의 02-742-0300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독자 초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11월 2일~9일)



• FESTIVAL •

2023 월출산 국화축제

● 영암 ● 10.28~11.12

그윽한 국화 향이 감성을 끌어올린다. 깊어 가는 계절, '국화,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축제는 무려 1억 송이에 달하는 국화와 꽃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축제장 곳곳에 포토 존과 조형물도 설치했다. 밤에는 이색적인 조명과 빛으로 물든 국화를 감상한다.

장소 전남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문의 061-470-2346



• FESTIVAL •

2023 연천울무축제

● 연천 ● 11.10~12

오곡이 익어 가는 가을, 연천 민통선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울무가 쏟아진다. 불거리와 요리 체험이 축제의 흥을 돋우고, 울무떡·울무두부·울무커피·울무막걸리 등 울무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가 입을 즐겁게 한다. 울무 외에 DMZ에서 기른 건강한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장소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일원
문의 031-839-2313

프로모션

Panasonic

초겨울 건강 지킴이, 파나소닉 안마의자

찬 바람에 움츠린 몸을 이완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안마의자가 필요하다. 11월, 최대 300만 원 할인 혜택 이벤트로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만나 볼 기회다.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 새 겨울 같다. 한결 서늘해진 바람에 외투 깃을 세우고 어깨를 움크리니,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옥신거리고 사지가 빠르다. 갑작스레 푹 떨어진 기온과 예상치 못한 초겨울 바람이 안온한 일상을, 건강한 심신을 위협한다. 어느 때보다도 사려 깊게 건강을 돌봐야 할 시기, 파나소닉 안마의자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

헬스케어 가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이끌어 온 파나소닉은 88년 세월 동안 부단한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제품력에 도달했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은 마사지 불이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불은 다채로운 주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다.

파나소닉의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섬세한 취향과 높은 안목을 지닌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마사지 불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두드리기·스트레칭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하고,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도 간편하게 고를 수 있다. 몸 구석구석 뭉친 근육을 전문가의 손길로 공들여 풀어 주는 EP-MAK1이 겨울을 건강하게 맞이하도록 도울 것이다.

← 세일 페스타



♥ 999 likes

#파나소닉_안마의자 #EP-MAK1 #이벤트 #세일_페스타 #구강_세정기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위한 11월 이벤트

[1] 파나소닉 안마의자 세일 페스타

안마 기술 집약체인 파나소닉 안마의자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 품목은 MAJ7, MAF1, MA32, MAC9, MA22, MA05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간 11월 1일~30일

[2] 구강 세정기 증정 이벤트

EP-MAK1 제품 구매 고객에게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EW1613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추천 제품으로, 건강 가전 분야 선구자 파나소닉의 뛰어난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다. 기간 11월 1일~30일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파나소닉 프리미엄 안마의자 EP-MAK1 마사지 전문가의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문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접근해 지압·스트레칭·문지르기·주무르기 등 방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나아가 마사지 불이 받는 압력을 탐지하는 정교한 기술로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인다.

문의 02-533-8452

성과 과

쪽빛 물결 위로 구름 없이 맑간 하늘이 흘렀다.
성과 섬, 항구를 거닐며 거제가 품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햇살과 달빛을 머금은 낮과 밤의 바다를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그리고 항구



섬

거제

FORTRFS



구조리리는 지형의 생김새가 자리 북을 닮았다 하여 조리북·조랏개·항리라 불렀고,
구조리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신우대 군락을 지나 구조리진성에 올랐다.

구조리진성



구조라 일대는 알수록 재미나다. 자라 목을 닳았다 하여 부른 조라목이 어원 중 하나이며, 수정산 자락에는 옛 진성인 구조라진성도 자리한다. 구조라여행자센터에서 구조라진성, 셋바람소리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구조라가 더 잘 보인다. 문의 055-681-8077



바다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단어다. 소리 내어 말하면 귀를 간질이는 파도 소리와 하얗게 부서지며 일렁이는 물결이 떠오른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를 실컷 보고 싶은 날, 달뜬 마음을 안고 기차에 올랐다. 종착역인 부산역에서 내린 뒤 남서쪽으로 더 내달려 섬까지 가 볼 작정이다. 면면이 눈부신 풍광과 역사를 간직한 경남 거제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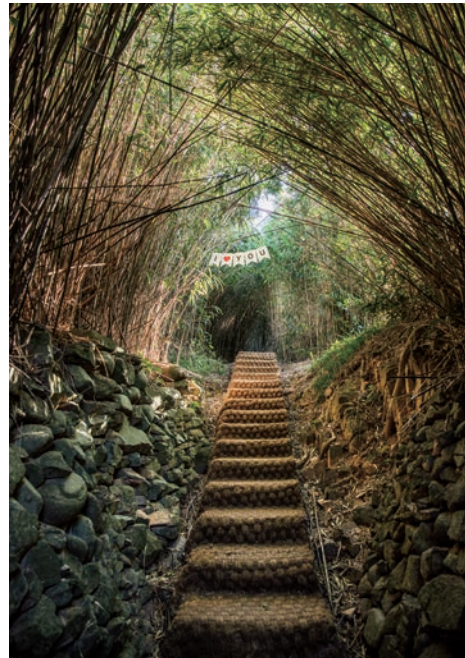
셋바람 불어오는 구조라진성

거제는 섬이되 뱃길을 이용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가 통영을, 거가대교가 부산을 이어 준 덕에 거제는 물과 다름없는 교통 편의를 갖춘 도시로 거듭났다. 부산역에서 거가대교를 건너 여행의 들머리인 구조라항에 닿았다. 크고 작은 배가 유유히 떠다니는 한적한 항구를 뒤로한 채 마을로 향한다. 구조라진성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대나무 길부터 펼쳐진다. 셋바람소리길이다.

두 명이 겨우 나란히 걸을 정도로 좁은 길 가장자리에 대나무가 뽁뽁이 들어섰는데, 마치 동굴처럼 길을 에워싸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익히 아는 대나무보다 가늘지요? 대나무의 한 종인 신우대입니다.” 이심선 문화관광해설사가 말을 건넨다. 가볍고 질긴 신우대는 바구니 같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화살의 재료로 사용했다. “구조라진성 아래 신우대 숲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적과 싸워야 하는 유사시 이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설명을 덧붙인다. 바람이 불자 신우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썩소리를 낸다. 뱃사람들은 동풍을 ‘셋바람’이라 했다. 동풍이 불면 이곳 신우대 움직이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난다. 이 길을 셋바람소리길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다. 셋바람과 대나무의 합주를 들으며 퉁퉁한 길을 빠져나오자 햇살이 쏟아지는 평평한 언덕이 나온다. 이곳 방언으로 ‘언덕바꿈’이라 하는 곳이다. 역사가 흐드러진 들판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과부와 홀아비의 애달픈 설화가 전하는 윤돌섬도 보인다. 길과 언덕, 작은 섬 하나하나 애정 어린 이름과 이야기를 붙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정답다.

본격적인 오르막이다. 숨이 턱에 닿을 무렵 돌무더기가 이어진다. 들쭉날쭉 쌓인 돌을 조심스레 딛고 오르자 성이 펼쳐진다. 그제야 지금 밟고 올라온 돌무더기가 구조라진성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전체 둘레 860미터, 폭 4.4미터, 높이 4미터에 달했을 이 진성은 현재 남문 부근만 남아 있다. 우뚝 솟은 구조라진성에 서서 마을과 항구를 굽어본다. 양쪽에 바다를 두고 좁게 들어간 지형이 인상 깊다. 언뜻 향아리 목처럼 좁아진 형태다. 이 모습이 옛사람들도 재미있었는지 조라목, 조랏개, 목 항(亢) 자를 써 항리라고 불렀고, 끝내 조라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하는데, 자라 목을 닳아서 조라목이라 했다는 해석에 마음이 쏠린다. 조라에 있던 진성이 1604년 옥포로 자리를 옮기면서 폐쇄됐으나 1651년 다시 진성의 기능을 되찾으며 이곳은 옛 조라, 즉 구조라가 됐다. 구조라 왼편은 구조라 해변, 오른편은 구조라 항구와 와현해변, 저 멀리 지세포도 보인다.

구조라진성은 지세포진성을 보조하고 방어하는 전초기지였다. 지세포를 우리 말로 풀이하면 ‘세상을 알 수 있는 포구’라는 의미다. 중국, 일본과 교역이 활발





ISLAND



외도 보타니아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는 정원에 간다.
햇빛을 받은 바다가 윤슬로 반짝이는 쾌청한 날, 뱃길을 달려 외도 보타니아에 닿았다.





외도 보타니아는 섬 전체가 식물원이다. 미국적인 아열대식물이 가득해 식물의 낙원이라는 별칭이 들어맞는다. 지중해 지역이 연상되는 하얀 건축물 사이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하면서 산책하기 좋다. 거제 7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간다. 문의 055-681-4541



해 각종 물자가 넘쳐 났기 때문이다.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했다. 성곽을 따라 걸으니 구조라진성이 전초기지였던 까닭을 알 것 같다. 이 일대에서는 해금강, 외도, 쓰시마섬(대마도)까지 보인다. 왜적을 감시하기에 알맞을 뿐 아니라 일본과 가까운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할 중요한 성이었으리라. 성곽에서 내려와 남문이 있던 자리에 선다. 벽과 벽 사이 텅 빈 공간이 대문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문 주변 성벽은 둥글게 쌓아 적에게 문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웅성 형태다. 구조라진성의 문은 총 세 개, 성벽에 붙은 적을 공격하기 좋게 만든 돌출 구조물인 치성은 다섯 개로 추측한다. 군사들이 바빠 오가고, 문과 치성을 교대로 지켰을 모습을 상상한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애써 주어서 고맙다고, 덕분에 이곳에서 편하게 풍경을 감상한다고 그들의 노고에 지금이나 감사사를 표한다.

해상 낙원, 외도 보타니아

섬 안의 섬 여행을 떠난다. 넓고 큰 섬인 거제에서 색다른 정취를 느끼고 싶어 외도 보타니아행 배에 오르기로 한다. 걱정과 달리 날씨가 맑다. 섬 여행은 기상 조건이 좌우하니, 이번 외도행은 하늘과 바다가 방문을 허해 준 셈이다. 구조라항에서 출발한 작은 유람선이 쪽빛 바다에 하얀 파문을 일으키며 순조롭게 달린다. 10분만 지나면 도착하기에 꿀렁거리는 뱃길도 즐겁기만 하다.

보타니아는 식물(botanic)과 낙원(utopia)의 영문을 합성해 만든 별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선착장에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미국적인 풍경이 눈을 사로잡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외도 보타니아는 섬 전체가 해상 식물 공원이자, 꽃과 나무의 향연에 눈을 어디부터 두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는 여행자의 본분을 상기한다. 감상하러 왔기에 마음 가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아름다운 것을 실컷 눈에 담기로 한다. 나무 잎사귀 하나도 운기가 돌아 반짝반짝하다. 잎이 작고 두꺼운 나무들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 따뜻한 해풍이 불어 염분에 강한 종이 잘 자란다. 외도 보타니아는 2000만 명 이상 다녀갔을 정도로 이름난 해상 식물 공원이지만, 과거에는 거제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 중 하나에 불과했다. 1970년대 섬을 매입한 이창호·최호숙 부부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열대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진 섬이라는 걸 체득한 뒤 꽃과 나무를 심고, 지금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노력과 의지에 세월을 더하면 섬의 운명도 바뀌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칠레, 멕시코,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선인장으로 가득한 선인장 정원은 작은 화분에 담길 만큼 앙증맞은 크기부터 거대한 나무에 이를 정도로 크기도 생김새도 천차만별이다. 불야성이 가시 돋은 잎을 기세 좋게 쭈욱 뻗었고, 고슴도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거제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11월 4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

소원을 비는 산책 길인 송구영신 소망길이 있는 장승포항이 연말이면 더욱 희망으로 가득해진다. 12월 31일에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참여한 뒤 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다 함께 외친다.

거제와 가까운 기차역은 부산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안녕과 풍요를 지키는 수호신인 장승이 마을 입구에서 있어 장승포항이라 불렀다. 그래서일까. 시리도록 추웠던 73년 전 성탄절, 장승포항에 기적이 일어났다.

장승포항



장승포 기적의 길, 송구영신 소망길이 이어지는 장승포항은 산책하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해 질 녘 장승포항 등대에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사위가 어두워지면 조명을 켜 송구영신 소망길의 장승과 달에 소망을 빌어도 좋겠다. 문의 055-639-4654



치용설란은 삐죽삐죽 자라난 모양새가 고슴도치가 움츠린 모습을 닮았다. 분명 거제인데 유럽이 연상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외도 보타니아를 대표하는 장소인 비너스가든이다. 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이던 넓은 공간을 유럽식 정원으로 가꿨다. 하얀 건축물과 곳곳의 조각상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다 사방을 파란 바다가 감싸 더욱 이국적이다. 벤베누토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친숙한 맨드라미부터 멜람포디움, 부겐빌레아, 알라만다, 순비기나무 등 붉은색·노란색·보라색 꽃이 싱그럽다. 툼툼이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더욱 절경을 이룬다. 잠시 벤치에 앉아 나풀거리는 흰 나비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는다. 꽃과 꽃 사이를 오가다가 이내 파란 배경으로 사라졌는데, 하늘인지 바다인지는 모르겠다. 하늘이 바다를 닮아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날이었다.

기적과 소망을 품은 항구

섬 따라 항 따라 이야기가 흐른다. 장승포항에는 따뜻한 사연이 녹아 있다. 장승포항은 어쩌다가 이름에 장승을 붙이게 됐을까. 마을 어른의 답은 명쾌하다.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던 포구라 그렇단다. 지금은 지명으로만 남았지만, 옛사람들은 옷거나 험상궂은 표정을 지은 장승을 볼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짐으로 안녕을 바랐을 것이다. 장승 덕분에 73년 전 성탄절, 장승포항에 기적이 일어났다. 장승포동 골목에서 시작하는 장승포 기적의 길을 따라 걸으며 흥남 철수 작전과 거제의 이야기를 벽화로 마주한다.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겨울. 유엔군과 한국 정부는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미군은 해상 철수를 택하는데, 병력은 물론 소식을 들은 주민까지 흥남항에 운집한다. 그렇게 철수가 이어지고 마지막 남은 배는 메리디스 빅토리호 한 척. 60명 정원인 화물선에 선원을 제외한 승선 가능 인원은 단 13명뿐이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선적한 무기와 물자를 모두 내려놓은 뒤 피란민을 차례로 태웠다. 승선하는 데만 장장 16시간이 걸려 1만 4000명을 태운 메리디스 빅토리호는 3일간 항해했다.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배가 도착했다. 모두가 무사했으며, 항해 기간 다섯 명의 아이가 탄생했다. 장승포 주민들은 광주리에 주먹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부두로 나가 피란민을 맞았다. 같이 살아가 보자고, 힘든 시절을 이겨 내 보자고, 밥을 주고 집을 내주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장승포 기적의 길이 끝나는 구간은 송구영신 소망길로 이어진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네온사인을 입은 장승이 입구에서 반긴다. 이 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든 장승포신사가 있던 자리지만, 장승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소망의 의미를 더해 조성했다. 찬찬히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장승포 일대의 여러 사연을 상기한다. 나무숲 사이 일렁이는 조명이 반딧불 같다. 이윽고 거대한 달 조명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소망한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낸, 또 살아가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시선을 멀리, 등대와 바다로 옮긴다. 성과 섬 그리고 항구에 이르기까지 거제는 많은 이야기를, 결국은 사람을 품었다. 어선의 불빛이 일렁이는 거제 밤바다는 꺼질 줄 모른다. 것처럼 거제 사람들의 이야기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K**



Geoje:



Fortress, Island, and Port

The cloudless sky flows over the shimmering waves. Strolling through the Fortress, island, and port, I immersed myself in the stories of Geoje, and admired the flow of the sea from day to night.

With a yearning to feast my eyes on the vast blue expanse of the ocean, I boarded the train bound for Busan Station. From there, I headed further southwest to Geoje, a city known for its dazzling landscapes and rich history.

Enjoying the Breeze at Gujora Fortress

Geoje is an island, yet not just an island. You can reach it without taking a boat. Crossing Geoga Bridge from Busan Station, I arrived at Gujora Port, the starting point of my journey.

Following the arrows pointing to Gujora Fortress, a bamboo

path unfolds. Bamboo trees densely line the narrow path, creating an atmosphere reminiscent of a cave, with the sunlight barely seeping through. Sinudae, a type of bamboo with joints, was used to make arrows in the past. The lightweight, sturdy arrows were useful for combating enemies in battles.

As I make my way up the unevenly stacked stones, Gujora Fortress comes into view. Standing atop Gujora Fortress, I gaze down at the village and the port. The narrow terrain flanked by the sea on both sides is quite impressive, resembling the neck of a turtle. Gujora Fortress served as an outpost. Being close to Japan, it was undoubtedly a suitable



fortress for monitoring potential enemies. I imagine the busy movements of the soldiers, and sincerely thank them for their sacrifices. If not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I would have missed out on the chance to appreciate this beautiful scenery.

Oedo Botania, a Marine Paradise

Geoje is a vast island in itself, but, seeking a different ambiance, I decide to board a boat to Oedo Botania. Oedo Botania, part of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is an entire island transformed into a marine botanical garden.

Every single leaf is glistening and sparkling. The Venus Garden, reminiscent of the Mediterranean, showcases white structures and sculptures scattered around, enveloped by the blue sea in all directions. Another highlight is the Benvenuto Garden. From familiar geraniums to pelargoniums, bougainvilleas, allamandas, and oleanders, the vibrant red, yellow, and purple flowers are simply delightful. The sea in the backdrop adds to the breathtaking scenery.

A Port of Miracle and Hope

About 70 years ago, on Christmas, a miracle happened at Jangseungpo Port. Walking along the Miracle Road of Jangseungpo Port, you come across the murals depicting the Heungnam Evacuation Operation and the story of Geoje.

In the winter of 1950, the year of the Korean War, the UN forc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bandon Pyongyang and retreat. This marked the start of the Heungnam Evacuation Operation. The SS Meredith Victory, carrying 14,000 refugees, sailed for three days and arrived at Jangseungpo Port on Geoje Island on December 25. The residents gave the refugees a warm welcome. They offered food and shelter, saying, "Let's live together, let's overcome these difficult times." There is no better word than "miracle" to describe how the situation turned out.

The section where the Miracle Road ends leads to Somang-gil, which means "road of hope." I stop to make a wish before the moon. May each and every one of us find peace and contentment in our own way. 🌕





거제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거제섬꽃축제 '꽃으로 그린 섬'. 17회를 맞은 올해 거제섬꽃축제의 주제는. 난지 농업 활로를 개척하고자 2006년에 막을 올린 뒤 지역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가을 꽃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거제시농업개발원과 거제식물원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잔디광장에서 국화 조형물을 감상하고, 섬꽃동산에서 털머위·해국·산국을 눈에 담는다. 온실에는 야생화 200여종과 자생란 3000여 점이 가득하다. 테라리엄, 세밀화 그리기, 수경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즐거움을 더한다.

문의 055-639-6443



거제대구수산물축제 '눈 본 대구, 비 본 청어'라는 속담처럼, 대구는 한겨울이 제철이다. 거제는 외포항 대구를 으뜸으로 여긴다. 대구의 질이 좋은 데다 연간 8만 마리가 잡혀서 그렇다. 거제의 대표 대구 산지이니 소문난 대구탕 맛집도 이곳에 여럿 있다. 거제 시어(市漁)인 대구를 주제로 매년 외포항 일대에서 거제대구수산물축제를 여는 이유다. 올해도 12월에 진행된다. 거제대구수산물축제는 각종 행사가 즐비한데, 대구 수산물 현장 경매는 활기찬 어시장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대구 직거래 장터에도 잊지 않고 들른다.

문의 055-639-4273

먹거리



거제 굴구이 10월이 넘어가면 식당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굴구이를 개시한다. 청정한 거제 해역의 굴은 이때부터가 제철이라서다. 거제는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근거한 미 FDA 지정 해역이다. 맛도 영양도 최고인 계절에 거제 굴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굴구이. 거제식 굴구이는 숯불이나 석쇠에 굽는 게 아니라 커다란 양철 솥에 굴을 한가득 채우고 익혀 먹는 찜 요리에 가깝다. '포로수용소 굴구이'(055-632-7254)에서 굴 요리를 코스로 맛본다. 커다란 굴 껍데기를 조심스레 열어 따뜻한 알맹이를 한 입 가득 먹는다.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에 미소가 절로 나온다.



거제 대구탕 큰 입을 가졌다고 이름도 대구다. 깊은 바다에 사는 대구는 새우, 오징어, 고등어 등을 잡아먹으며 몸을 불린다. 산란기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대구가 거제 앞바다로 몰려오니, 거제 대구탕은 겨울이 절정의 맛을 자랑한다. 뽀얀 거제 대구탕 국물은 진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부드러운 대구 살과 시원한 국물을 곁들이면 몸이 따끈해져 서늘한 바깥 날씨도 잊는다. 버릴 것 없는 대구는 알과 내장도 영양소 덩어리다. 괜히 보양식이 아니다. 거제에서는 대구와 떡을 넣어 끓인 대구떡국도 겨울 별미로 꼽는다. 쫄득한 떡과 대구 살을 함께 먹으니 든든하다.

© 거제시

프로모션



면역력 비상! 초겨울 건강관리를 위한 프리주비네이션

열차 좌석에 앉아 있는 당신, 손발이 시리거나 한기를 느낀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프리주비네이션으로 건강한 체력을 미리미리 관리할 때다.

평상시 건강을 과시하며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 자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려 며칠씩 앓아눕는 이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한기에 예민해 초겨울부터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극단적인 두 경우 모두 면역력 저하를 의심할 만하다. 젊고 건강한 몸은 체온 관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때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각종 대사 능력과 면역력이 저하한다. 머플러 등 방한용품을 챙기거나 따뜻한 차를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위에 맞서는 건강한 체력을 갖추려면 근육량 증가만이 답이다. 체온의 약 20퍼센트가 근육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섬유 속 미토콘드리아의 수행 능력이 관건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근육이 튼튼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아울러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체온도 높아지며 면역력도 좋아진다.

프리주비네이션, 노화에 앞서 건강을 유지할 것

문제는 노화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이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세포 전반의 노화 및 쇠퇴 징후를 되돌리는 데 큰 힘이 된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건강하게 근육을 늘리는 동시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건강관리를 더해 보라고 제안한다. 운동과 함께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을 병행하면 젊고 건강한 몸을 장기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이 “노화 현상을 느끼기 전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를 통칭하며,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 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

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설명한다.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전신 재생 작용을 촉진한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깃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초겨울 건강 지키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 추천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에 두세 번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질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조 원장은 조언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산으로 강으로 상주 기행

경북 상주에서 오색으로 물드는 산길을 누비고, 낙동강이 선사하는 정경을 만끽했다.
유유히 흐르는 강처럼 마음도 느긋했다.



尙州



호국의 길, 백화산

주홍빛을 머금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감나무에는 채 여물지 않은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들판은 황금색 물결이 넘실댄다. 투명한 햇살이 곡식과 초목을 어루만지자 따스하고 여유로운 기운이 솟는다. 경북 상주의 가을날, 고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풍요로움에 마음이 충만해진다.

여정의 시작점은 상주 서쪽의 백화산으로 정한다.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이곳에 숨은 오솔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다. 백화산 둘레길은 옥동서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충북 영동 반야사 터까지 4킬로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이는 상주와 영동을 연결하는 옛길이기도 했다. 산을 가르며 흐르는 구수천을 두고 양옆으로 길이 나뉘어 저마다 보이는 풍경이 다르니 원하는 쪽을 택해 걷는다. 강을 따라가다 무지개다리와 큼직한 돌을 놓은 징검다리를 지나면 본격적인 산길이다. 우거진 숲 아래 흠길이가 시원하고 촉촉하다. 나무들이 뜨거운 별을 막아 주어 산책하기에 쾌적한 환경이다. 이끼 낀 돌 위에서 민달팽이가 뚱뚱하게 되고, 나비가 활기차게 날갯짓을 한다. 다른 생명에게도 상쾌한 것은 마찬가지인가 보다. 밤나무골을 지나 중간쯤 오자 출렁다리가 눈에 띈다.



다. 바위산을 배경으로 두고 흐르는 강 위에 놓은 다리라니,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뛰어든다. 길어도 80미터로 길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한다. 울렁거리는 다리를 건너다 잠시 옆을 바라보는데, 순간 절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와 윤슬로 반짝거리는 강. 깊은 가을엔 울긋불긋한 색이 더해져 더욱 눈길을 끌겠다.

산과 강을 동무 삼아 걷는 둘레길의 또 다른 이름은 호국의 길이다.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혼란할 때, 황령사 승려 홍지가 이끄는 군대가 몽골 장수 차라대의 군사를 전부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과 의병이 왜적과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해발 933미터 산 정상에는 신라 무열왕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진격할 때 쌓은 금돌성과 행궁 터가 남아 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와 가까웠으니 크고 작은 전투가 잦았을 것이다. 슬한 사연과 역사가 이곳에 얽혔다. 어지러운 사건을 모두 지켜본 산은, 여전히 묵묵하기만 하다.



출렁다리를 건너다 옆을 바라보자 절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와 윤슬로 반짝거리는 강. 깊은 가을엔 울긋불긋한 색이 더해져 더욱 눈길을 끌겠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영주역에서 내린 뒤 무궁화호로 환승하면 상주역까지 4시간 정도 걸린다. 상주와 가까운 KTX 역은 김천(구미)역이다.

은 거대한 모래톱을 생성했고, 그 규모가 워낙 거대해 강수량이 적을 때에는 모래섬처럼 보이기도 했다. 2011년 상주보를 완공한 후 모래톱이 있던 자리에 생겨난 것이 경천섬이다.

섬이니만큼 차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누에나방을 형상화한 지붕이 특징인 범월교를 두 다리로 건너 섬에 들어간다. 20만 제곱미터(약 6만 평)에 달하는 생태공원에 한가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잔디밭에는 띄엄띄엄 소풍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눈다. 나비 모양으로 조성한 길에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아이와 보호자, 영당을 실룩거리며 뛰어노는 개까지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을바람을 즐기는 이도 보인다. '자전거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고장답게 섬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고, 입구에 전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섬 근처에 상주자전거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문학관 등이 위치해 문화 여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심심할 틈이 없다.

입구 반대편, 길이 345미터의 낙강교를 거치면 비봉산에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그 정상에 낙동강 학전망대가 위치한다. 해발 230미터라 완만하지만 산은 산이다. 가파른 길을 지나 전망대에 도착한 후엔 시름을 잊는다. 낙동강, 경천섬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광활하기만 한 공원이 이곳에선 아기자기한 장난감처럼 보인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가 산을 덮고, 그 아래 유유히 너른 강이 흐른다. 고려시대 문인이규보는 시가 '행과낙동강'으로 낙동강에 내린 가을을 노래했다. "청산 속 돌고 돌아서/ 한가로이 낙동강을 지나노라/ ... / 가을 물은 청둥오리 머리같이 푸르고/ 새벽하늘은 성성이 핏빛처럼 붉구나."



잔잔한 낙동강, 경천섬

백두대간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한 상주는 비옥한 평야 덕에 예부터 질 좋은 쌀과 꽃감으로 명성이 높았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다음가는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다.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명 경상남도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딴 것이니, 고장이 지닌 힘이 짐작된다.

상주가 성장한 데에는 낙동강의 몫이 컸다. 낙동강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는 황산강이라 불렀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지금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 추정한다. 조선 시대 지리서 <택리지>는 '낙동', 즉 낙양 혹은 상락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 칭했다. 낙양과 상락은 모두 상주의 옛 이름이다. 고장을 끼고 흐르는 강



하늘이 내린 경천대

경천섬에서 낙동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면 이제 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망한다. 차로 5분가량 이동 해 무지산 중턱에 닿는다. 산 위로 향하는 길에 ‘경 천대’라고 적힌 거대한 비석이 놓였다. 옛 이름은 하 늘이 스스로 내렸다는 뜻의 자천대였다. 조선 시대 에 선비 채득기가 병자호란을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 는데, 풍경에 반해 하늘을 떠받친다는 뜻을 담아 새 로 지은 이름이 경천대다. 그 광경이 얼마나 빼어나 길래 하늘이 내렸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품었을까. 차오르는 호기심을 품고 전망대로 가는 계단을 밟는 다. 나무와 흙으로 조성한 계단 옆에는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을 만들었다. 신을 벗고 피부로 날것 그 대로의 자연을 느껴 본다. 몇 그루의 소나무를 지나 치자 하얀 옥주봉 전망대가 서서히 드러난다. 아직 은 나무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경천대가 뜸 을 들이는 것 같다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단숨에 전 망대로 올라선다.

둥글게 흘러 굽이치는 강,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바 위 끝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강 건너에는 황금빛 들판이 드넓다. 마침 벼를 거둬들이는 중인지 빨간 콤팩인이 눈을 가로지르고, 개미만 한 사람이 분주



히 왔다 갔다 한다. 가을만이 선사할 수 있는 절경에 탄성이 터진 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경천대를 다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 전망 대에서 아래로 내려가니 절벽 끝에 위를 향해 솟은 바위를 마주 한다. 크고 작은 자갈이 박혀 바위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강 상류 의 자갈과 흙이 뒤집혀 생성된 역암이다. 바위 사이에는 명나라 와의 의리를 다지자는 문구를 새긴 경천대비가 서 있다. 세월이 흘러 비석도 바위도 조금씩 바랬지만 아직 굳건하다.

바로 근처에 채득기가 지은 고동색 정자 무우정이 자리한다. 풍 경에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 주는 정자에 앉아 조용히 자연을 감상한다. 문득 풀벌레가 울고, 새가 포르르 날아가다 지저귐다. 관직을 마다하고 이곳에 은거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마음을 담백 채워 주는 자연을 곁에 둔 자에게 명예와 부로 유혹한들 무슨 소 용일까. 잠시 복잡한 일을 내려놓은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길 반 복한다. 청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이찬다. 상주의 가을 정경 은 계절이 가도 오래도록 기억에 머물 것이다. **㉠**





군위에서 보낸 가을 방학 🍂

누구에게나 방학이 필요하다. 연휴가 부재하는 11월엔 더더욱.
화본역과 한밤마을, 삼존석굴을 품은 대구 군위를 생애 여행 프로그램
'내추럴 대구'로 둘러보았다. 방학처럼 달콤한 시간이었다.

취재 협조: 대구문화재단, 신규철

휴일의 은총이 함께했던 10월이 가고, 설 틈 없이 일상에 복무해야 할 11월이 왔다. 법사에 충실한 생활도 좋지만 일터에서, 교실에서, 집 안에서 이 계절을 다 흘려보내기엔 하늘과 바람과 날씨가 사치스러울 만큼 아름답지 않다. 이즈음 머릿속을 가득 메운 여행지는 대구 군위다. 팔공산 북쪽 자락에 날개를 걸친 모양으로 자리한 <삼국유사>의 고장. 누군가는 대구와 군위를 붙여 쓴 것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대구는 지난 5월 팔공산이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기쁨을 누렸고, 7월에는 군위군을 새 식구로 들이는 곁경사를 맞이했다. 곁을 곁음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대구가 된 군위를 천천히 산책하기로 했다.

#한 걸음

그림엽서 속 화본역

곱게 빛바랜 사진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산성면 화본마을. 조림산 아래 펼쳐진 이 자그마한 산간벽지가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철도 덕분이다. 1936년에 완공해 1938년 영업을 시작한 화본역은 오랜 세월 화본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시대가 변하고 교통 환경이 정비되면서 하루 여섯 번만 열차가 정차하는 운전간이역으로 책무가 가벼워졌으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에 꼽힐 만큼 사랑스러운 역사는 지금도 많은 이의 발길을 모은다. 뽕죽한 지붕, 예스러운 글씨체로 '화본역'이라 써넣은 입구, 철도청 시절부터 사용한 도장, 1971년 12월 21일에 승인해 갱지에 인쇄한 '선로이상통지서'까지. 화본역과 화본마을의 유구한 역사가 이 작은 역사에 고스란하다.

철길 너머에는 증기기관차의 흔적을 짐작하게 하는 급수탑이 우뚝 솟았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대던 급수탑은 1950년대에 디젤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제 역할을 잃고 가동을 멈추었다. 증기기관차는 사라졌지만 급수탑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남아 옛일을 소환한다. '석탄 정돈 석탄 절약'이라는 문구를 적어 둔 급수탑 안엔 창문에 팔을 뻗은 소녀와 고



양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백마 조각상이 놓였다. 그 모습이 꼭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 같아서 어쩐지 오묘한 기분이 든다.

시간 여행은 역 바깥에서도 이어진다. 옛 산성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1960~1970년대 학교 생활을 재현한 화본마을 체험 학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는 화본역에 방문한 여행자가 경유하기 좋은 코스다. 화목 난로와 풍금과 주판이 놓인 교실, LP를 쌓아 둔 다방의 뮤직 박스, 복도에 늘어선 온갖 자질구레한 그 시절 물건들... 아련한 미소, 애뜻한 향수를 부르는 시간이다.

#두 걸음

돌담길 따라 걷는 한밤마을

타임머신의 시계를 매만져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엔 고려 시대다. 화본마을에서 부흥로를 타고 가다가 부계 교차로를 지나 한티로에 오르면, 10분여 만에 소담한 소나무 숲과 비석군, 솟대가 나타나 또 다른 마을 입구에 다다랐음을 알린다. 팔공산 북쪽 자락에 자리해 맑은 기운이 가득한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이다. 950년경 부림 흥씨 입향조 홍란이 마을을 꾸린 이래 밤이 긴 두메산골이란 뜻

화본역과 승강장, 급수탑을 한 번에 둘러보기 위해서는 기념 입장권을 발급해야 한다. 화본역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 여행을 추억하기에 제격이다. 체험 학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가 가까우니 두루 살핀다.
문의 1544-7788(화본역), 054-382-3361(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에서 '대야(大夜)'라 불렀으나, 후대에 '한밤(긴 밤)'과 음이 같은 '대울(大栗)'로 바뀌었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어감만 보면 알이 짝 차 함박 벌어진 밤송이가 떠오르는 이름인데, 가을빛이 완연한 마을의 첫인상도 것처럼 아늑하고 풍요롭기 그지없다.

유서 깊은 고택과 야트막한 돌담길이 자아낸 고즈넉한 정취에 '내륙의 제주도'란 별명도 생겼다. 예부터 물난리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돌담은 오늘날 집과 집, 길과 길, 풍경과 풍경을 잇는 표지가 되어 여행자의 발길을 재촉한다. 눈 밝은 이들은 일찍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출사지로 아껴 왔고, 끝내는 영상 매체로도 담았다. 지난 상반기에 방영한 드라마 <나쁜 엄마>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다. 모자간의 화해, 이웃 간의 정을 그린 선한 이야기가 수수하고 소박한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든 듯하다.

송림과 보호수를 따라 마을 어귀에 접어든다. 주민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는 슈퍼가 보이고, 그 뒤로 양조장·방앗간·미용실·보건소 등 정감 어린 간판이 길 옆으로 죽 이어진다. '카페 호두나무'와 '뮤지엄 스테이'에 이르러 맛은편 골목인 한밤5길에 들어서니 남천고택과 대울리 대청 등 옛 건물이 모인 마을의 중심부에 닿는다.

남천고택은 부림 흥씨 문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집이다. 후손들이 여러 차례 중수한 흔적이 남아 조선 시대 건축양식 전반을 엿보게 한다. 이 건물과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대울리 대청은 조선 초기에 세운 학사로, 지금은 마



경북 경주 석굴암보다 앞서 조성한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암벽에 마애불을 새기는 여느 석굴 사원과 달리 자연 암벽에 석굴을 만들고 불상을 안치한 흔치 않은 사례다. 석굴 높이는 약 4.2미터. 본존상은 약 2.2미터에 달한다. 문의 054-383-8032



다정한 골목과 고아한 옛집이 이어진 대울리 한밤마을은 수백 년 세월 동안 6.5킬로미터에 달하는 돌담길을 보존해 왔다. 남천고택, 대울리 대청, 동림재, 부림 흥씨 종택, 대울사 등을 둘러보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다. 문의 054-383-0061

NATURAL DAEJU

+ 내추럴 대구가 안내하는 군위 여행
대구 생태 자원을 탐방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여행 프로그램 '내추럴 대구'를 제안한다. 군위군 대구 편입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생태 자연 테마를 중심으로 군위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함께하는 군위 한마당 코스'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동대구역-군위 삼존석굴-중식(순두부 또는 산채비빔밥)-한밤마을(군위 남천고택 등)-화본역-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체험-동대구역 순서로 이어진다. 문의 053-740-0421

을 광장 역할을 하는 장소다. 어떤 방향으로 돌담길을 산책하든 대울리 대청을 이정표 삼는다면 지도 없이 발 닿는 대로 마을 구석구석을 거닐 수 있다. 때마침 햇살이 쏟아지는 돌담 위로 발장게 익은 단감과 산수유 열매, 샛노란 들녘과 푸른 팔공산 능선, 하얀 몽게구름과 높디높은 하늘이 저마다의 색으로 형형하다. 한가을, 한밤마을이다.

#세 걸음

석굴암보다 100년 앞선 삼존석굴

한밤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비경이 있다.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이다. 팔공산 북쪽 기슭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석굴을 조성하고 삼존석불을 모셨다.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했다고 추정하는 삼존석굴은

한때 '제2석굴암'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경북 경주 석굴암 석굴보다 약 100년 앞섰을 뿐 아니라 석굴암 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삼존석굴까지 가는 길엔 관음전과 범종각, 석조비로자나불 좌상과 모전석탑이 즐지어 참배객을 마중한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나뭇잎이 머리 위로 드리우고, 청아한 시냇물은 절벽을 휘감아 흐르며 낮은 소리로 졸졸졸 노래한다. 석굴 가까이 다가갈수록 영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마침내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알현한 순간. 온화한 미소와 평안한 자태가 중생을 위로하니, 가슴이 환해지고 번뇌가 씻긴다. 이토록 자비로운 찰나를 허락한 우연과 운명에 감사하며 손을 모아 기도한다. 돌맹이와 풀 포기 하나까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오래도록 안녕하기를. k



한 소녀가 무덤 앞에서 낮이 나간 채 몸을 떠다. 총탄에 맞은 엄마의 손을 뿌리친,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리면서. 1996년 작 <꽃잎>은 한국 영화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첫 번째 작품이다. 소녀와 엄마를 갈라놓은 충격 장면은 실제 사건 현장인 금남로에서 촬영했고, 이후 여러 편의 영화가 시대의 아픔을 직시하며 광주를 그렸다. 전남도청에서 벌어진 시민군의 사투를 묘사한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정의로운 복수를 공모하는 <26년>은 광주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로케이션으로 담아내어 도시의 실감을 충실히 표현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광주와 광주의 역사는 영상 매체에,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

아픔은 잊을 수 없어도 아픔으로만 광주를 논하기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예향만큼 이 고장을 뚜렷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광주의 풍요로운 예술 문화 자원은 기꺼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가 되어 주었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선 아시아 미술의 허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첩보 영화 <공작>에, 1935년에 개관한 한국 최고령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은 제목에서부터 '극장'을 이야기하는 영화 <국도극장>에, 선비 문화가 흐르는 광주의 진산 무등산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연인>에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주·전남 지역의 유물과 전통을 보존하는 국립광주박물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가상 공간인 한반도 통일 조폐국을 감쪽같이 연기하기도 했다.

도시의 근대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박물관 양림동도 이즈음 영상 제작자들의 이목이 쏠린 촬영지 중 하나다. 개신교 선교사가 거주하던 고풍스러운 주택과 조선 말기의 건축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전통 가옥은 영화 <해여화>와 <밀정> 등 시대극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올가을, 양림동에서 촬영한 또 하나의 기대작이 공개됐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품과 더불어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사려 깊은 시선으로 담아낸 영상 콘텐츠 네 편을 소개한다. **㉠**

A young girl is trembling before a grave, recalling the nightmarish moment when she pushed away her mother, who was hit by gunfire. The 1996 film *A Petal* was the first Korean film to depict the Gwangju Uprising. The scene where the girl and her mother are separated was shot in Geumnam-ro, the actual site of the incident. Gwangju's painful history served as the theme of many subsequent films. Among them, *May 18*, *A Taxi Driver*, and *26 Years* were filmed in Gwangju to enhance the realism of their stories.

Although the pain is unforgettable, there's more to Gwangju beyond the tragedy. It is reputed as *yehyang*, which means "a hometown of art." The Asia Culture Center, now standing in the former Jeonnam Provincial Office location, played a role in the espionage film *The Spy Gone North* set in the 1990s. Mudeungsan Mountain came under the spotlight in *My Dearest*, a popular drama that recently ended. The Gwangju National Museum, preserving relics and traditions of the Gwangju-Jeonnam region, became the mint of a fictional unified Korea in the Netflix original series *Money Heist: Korea - Joint Economic Area*.

Yangnim-dong, a living museum of the city's modern history,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focal points for filmmakers. The elegant homes where Protestant missionaries resided and traditional houses showcasing late Joseon architectural features have played key roles in *Love, Lies* and *The Age of Shadows*. Read on for a list of four movies and TV series that depict Gwangju's past and present with an insightful perspective. **㉠**

광주라는 투명한 거울

현대사의 굽직한 사건을 온몸으로 통과한 광주는 한국 사회의 다채로운 면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도시다.



© 신규권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DRAMA

<이두나!>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



대학가 공동주택에 사는 청년 원준은 어느 날 옆방에 새로 입주한 이웃과 맞닥뜨리고, 점차 마음을 빼앗긴다.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그의 정체는 아이돌 그룹 드림스윙으로 활동하다 돌연 탈퇴한 멤버 이두나다. 원준과 두나가 함께 지내는 집, 산책을 즐기는 골목이 모두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자리한다. 고즈넉한 정취가 로맨스에 불을 지핀다.

Wonjun, who lives in a university housing complex, encounters his attractive new neighbor, Doona, who moves into the adjacent room. As they spend time together, Wonjun gradually falls for her. The building where they live together is on the Yangnim-dong Horanggasinamu Hill.



MOVIE

<검은 사제들>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천주교 구마 의식을 실감나게 묘사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이 영화는 실제로 다양한 종교 관련 기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도 그중 하나다. 김 신부를 도와 구마 의식을 거행하는, 조금은 삐딱한 신학생 최 부제의 기숙사가 바로 이곳이다. 최 부제가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장면을 비롯해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This film, vividly portraying the Catholic rite of exorcism, was filmed at the Gwangju Catholic Lifelong Education Center. The dormitory where Deacon Choi, who helps Father Kim perform the rite, is right here. In the film, Deacon Choi leaves the dormitory without permission.



MOVIE

<26년>

#전일빌딩, 계림동 헌책방 등

1980년 5월 광주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이 26년간 눈물을 삼키며 기다려 온 복수가 펼쳐진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전일빌딩과 계림동에 자리한 헌책방 '문학서점' 등 도시 곳곳의 수많은 장소가 영화에 등장해 생동감을 더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저택 또한 동명동 주택가에서 촬영했다.

The movie, centered on the lives of those who lost their families and wait 26 years to take revenge, brings to the screen many places in the city, such as the Jeonil Building, with bullet marks left from the Gwangju Uprising, and Munhak Bookstore, a secondhand bookstore in Gyerim-dong.



DRAMA

<도시남녀의 사랑법>

#이이남 스튜디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아틀리에와 갤러리, 카페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이이남 스튜디오.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은 물론이고 근사한 공간과 멋진 전망을 누릴 수 있어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때 연인이었다가 소원해진 은오와 재원이 재회해 새로운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가 이곳 테라스다.

Leeleenam Studio serves as the media artist Lee Lee Nam's studio and gallery, and a café at the same time. Filled with mesmerizing artworks, it attracts a steady stream of travelers. The terrace here is where Eun-o and Jae-won, once lovers who separated, reunite and promise a new love.





경비행기-공주

백제 역사를 품은 충남 공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누빈다. 금강과 미르섬, 공산성 등 단풍으로 물들어 알록달록한 도시를 내려다본다. 비행 중 체험자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공주에서 부여까지 장거리를 비행하는 코스도 마련했다. 750미터의 긴 활주로를 보유하고, 숙련된 비행사와 함께해 안전하다.

주소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춘리 943
문의 010-9337-4797(공주경비행기)



루지-인천 강화

루지는 동력 장치 없는 카트를 타고 지면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스포츠다. 강화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오션 코스, 360도 회전하는 밸리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8킬로미터의 트랙을 시원하게 내달린다. 카트를 운전하며 반짝이는 서해안을 감상한다. 루지 탑승 후엔 한 시간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전망대에서 섬안의 매력을 만끽한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문의 032-930-9000(강화루지)

달리고 헤엄치고 날아요, 가을 액티비티

계절에 물들어 가는 자연을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 전국 액티비티 성지를 모았다.



하늘자전거-강릉

높디높은 파란 하늘 아래, 공중에서 자전거가 굴러간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짜릿한 체험이다. 남향진해변 수면 20미터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타워 간 300미터 거리를 왕복으로 다녀온다. 와이어로프가 자전거를 위아래로 단단히 고정하니 걱정을 던다. 체험을 마친 후 건너편 안목해변에서 커피를 마셔도 좋겠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127번길 35-7
문의 033-641-9002(아라나비 바다하늘자전거)



프리다이빙-서귀포

프리다이빙은 더울 때 하는 것이라는 편견은 넣어 둔다. 날이 추워지면 수온이 올라가 물속이 밖보다 더 따뜻하다. 프리다이빙 슈트, 수경 등 장비를 대여해 주니 몸과 마음이 가볍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산호초, 연산호 군락 등 아열대성 해양 생태계가 온전한 문섬과 췌섬, 범섬 근처에서 잠수한다. 가을날 숲속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기다린다.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169
문의 @jeju.intodive(인투다이브)

동구 방문의 달
10.20 ~ 12.19

부산로컬매력을 찾아서 이바구꽃핀 동구로 떠나자!



KTX 편도 + 렌터카

여행일
2023년 11월 ~

포함 내역
서울 - 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렌터카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기차여행센터
QR로 해당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렌터카
대여 지점 안내 : KTX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차종 : 아반떼, K3
차량 업그레이드 (쏘나타, K5) : + 30,000원
자차 보험 : 현장 결제



동구 보물찾기 코스

초량이바구길 남산창고(터) - 168계단 - 명란브랜드 연구소 - 이바구공작소

이중섭거리 & 웹툰이바구길 이중섭전망대 일원 - 웹툰이바구길 (성북시장) - 책마루전망대 (동구도서관)

부산관광공사가 진행하는 구군 방문의 달 행사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앞서 진행한 남구, 영도구에 이어 동구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다. 동구의 마스코트 '명란 삼남매'와 함께하는 보물찾기 이벤트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도 받고 동구 여행도 즐겨 보자!



KTX 공식 협력 여행사
전화 문의 1899-2550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masihub.com/busanlo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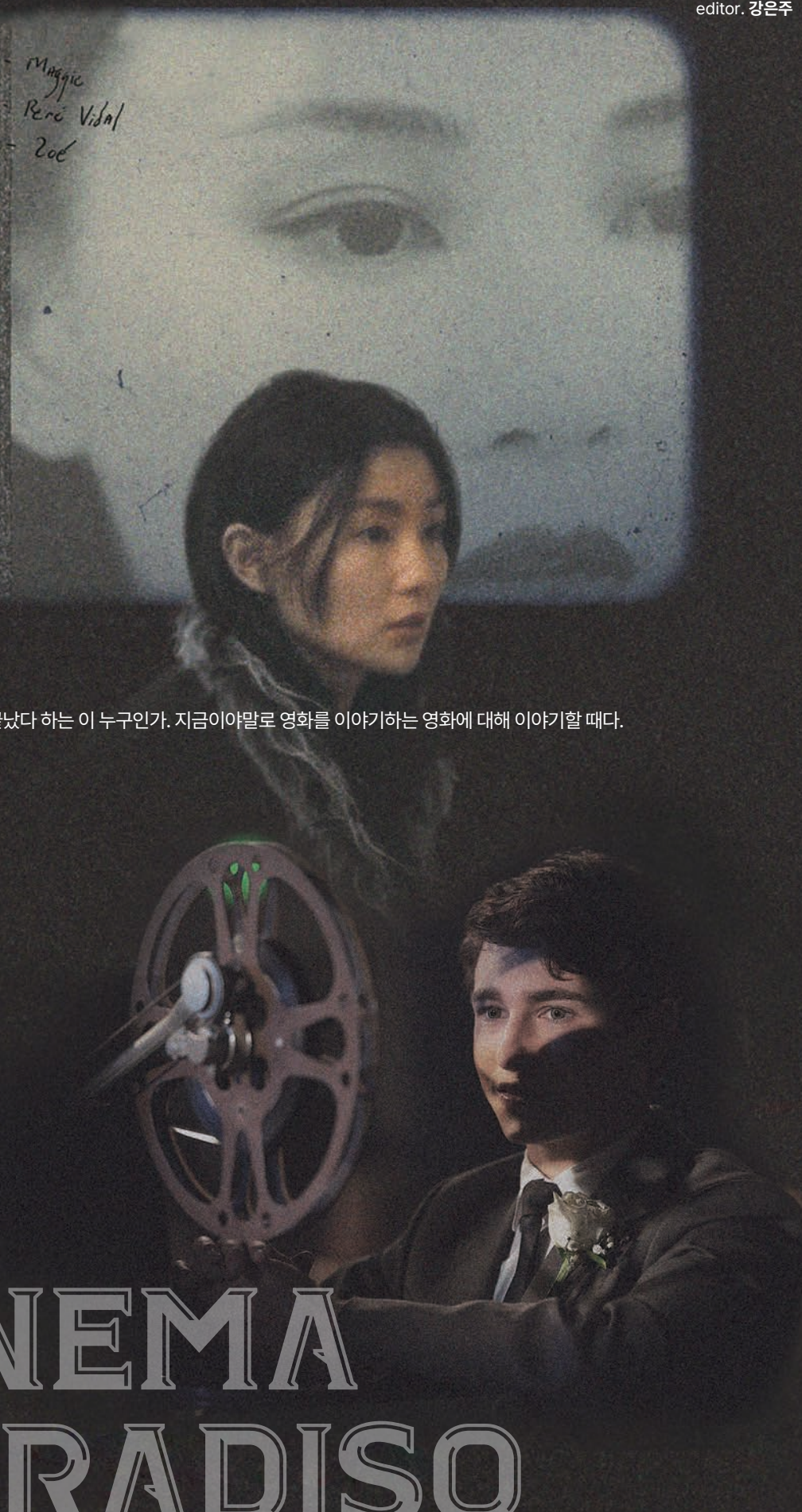
Maggie Cheung - Maggie
Jean-Pierre L aud - P ric Vidal
Matthew Richard - Zo 

영화

영화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이 누구인가. 지금이야말로 영화를 이야기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만세

CINEMA PARADISO



그래도 영화, 다시 영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린 2020년 2월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가 영화 산업의 가장 큰 적이 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유례없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목으로 영화관은 거의 운영 중단 상태였고, 관객들은 자연히 스크린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사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OTT 플랫폼 구독은 급등한 영화 관람료를 감당하는 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으며, 스크린에 걸려야 할 영화들이 일제히 '방구석 1열' 앞에서 상영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이 흘렀다.

영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영화를 사랑하는가. 예기치 못한 영화의 암흑기, 영화 창작자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한다. 우리 시대의 영화감독으로 꼽히는 이들이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스티븐 스피버그부터 데이미언 셔젤에 이르는 시네아스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 저마다의 작품에 영화를 담았다. 본래 영화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예술이니, 이즈음 자기 반영적 영화의 동시다발적 출현은 우연이 아닌 필연, 차라리 하나의 현상이라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다시 영화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이야기한다. 물론 영화를 다룬다고 해서 다 같은 영화는 아니다. 이를 테면 <시네마 천국>이 그러했듯 영화에 대한 질문 향수를 자극한다거나, '영화에 대한 영화'의 교과서라 할 만한 <8과 2분의 1>처럼 꿈과 환상과 영화를 중첩한다든가, 칸 국제영화제 60주년을 기념해 서른다섯 명의 감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 <그들 각자의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향한 사랑을 열렬히 고백하는 다양각색, 다종다양한 작품을 모았다. 영화의, 영화에 의한, 영화를 위한 영화 여덟 편이 바로 지금 펼쳐진다. k



⦿ <그들 각자의 영화관>(2007), 테오 앙겔로풀로스 외



⦿ <시네마 천국>(1988), 주세페 토르나토레



⦿ <8과 2분의 1>(1963), 페데리코 펠리니



(나 어렸을 적에)

인생 첫 영화, 첫 영화관을 기억하는지. 생애 처음 영화 관람을 앞둔 소년 새미 파벨만스는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때 피아니스트인 엄마 미시는 남다른 감수성에 기대어 아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 눈을 반짝이는 엄마의 말에 상영관으로 들어선 새미는 곧 영화라는 마법에 사로잡힌다. 이 어린 소년의 모습에 포개지는 얼굴은 다름 아닌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다. <파벨만스>는 그가 영화와 조우한 순간부터 거장 존 포드 감독을 우연히 맞닥뜨린 청년 시절까지,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 온 자신의 영화적 성장담을 지극히 순수하고 겸허한 태도로 풀어 낸다.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도 <페인 앤 글로리아>에서 꿈 많았던 과거와 영화감독이 된 현재를 투사했다. "내 어린 시절의 영화란 암모니아 냄새와 재스민 향기, 한여름의 산들바람이었다." 악물 의존으로 고통받는 노쇠한 영화감독 살바도르는 뜻하지 않은 우연과 만남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건져 올린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에게 "넌 몽상가구나"라고 말해 주던 엄마,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미적 감흥을 일깨운 청년 에두아르도를 회고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된 살바도르는 끝내 "영화를 못 찍는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절실한 결론에 다다른다.



🎬 <파벨만스>(2022), 스티븐 스피버그



🎬 <페인 앤 글로리아>(2019), 페드로 알모도바르

(창작자, 길을 잃다)

스피버그는 <파벨만스>를 빌려 "영화는 꿈"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감독이 악몽과 환상과 허구적 상상에 시달리며 신경쇠약을 호소한다. <거미집>의 주인공 김 감독 또한 작업 중인 새 영화에 대한 꿈을 되풀이해 꾀다. 꿈을 그대로 옮겨 결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영화사에 남을 걸작이 되리라는 예감에 사로잡힌다. 제작사로부터 허락받은 재촬영 시간은 단 이틀. 갑자기 불려 온 제작진과 배우들은 김 감독이 착안한 파격적 결말에 궁시렁거린다. 이수라장이 된 촬영장에서 김 감독은 기이한 예지몽을 꾸고,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흘러간다. <이마 베프>의 주인공 르네 비달 역시 비슷한 사정에 놓인다. 그는 고전 영화 <뱀파이어>를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에 홍콩 최고 스타 매기(매기는 배우 장만옥의 영어 이름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연기한 셈이다)를 주인공 무시도라 역으로 섭외하면서 야심 찬 시도를 하지만,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촬영장에서 벗어나 잠적하는 등 기행을 저지르던 르네는 결국 감독 자리를 빼앗긴다.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진 매기도 방황하기는 마찬가지. 영화의 대단원에 이르면 르네가 미완으로 남긴 편집본이 흐르기 시작한다. 흑백의 스카이라인, 매기의 매혹적인 몸놀림, 섬광 같은 이펙트가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아사야스 감독은 이 작품을 2022년에 드라마화해 또 한 번 길 잃은 예술가의 초상을 완성했다.



🎬 <거미집>(2023), 김지운

🎬 <이마 베프>(1996), 울리비에 아사야스



(우당탕탕 영화관)

스타. 말 그대로 별처럼 멀지만 환하게 빛나는 존재. 스크린에 드리운 매력적인 스타 배우의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 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도맡는다. 재능을 타고 난 배우들은 화려한 삶과 권력과 부를 누리지만, 그만큼 다양한 유혹과 위협에 노출된다. <헤일, 시저!>는 동명의 영화를 촬영하던 당대 최고 스타 배우 베어드 휘트록이 공산주의자 단체에 납치당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연배우가 사라지면서 뜻밖의 난관에 맞닥뜨린 영화사 대표 에디 매닉스는 기지를 발휘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1950년대 할리우드 풍경을 묘사한 이 영화는 <벤티> <설리반의 여행> <백만 달러 언어> 등 당대의 영화를 경유하고 실존 인물을 모델 삼아 입체감을 더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이보다 본격적으로 실화를 파고든 영화다. 한때 인기를 구가하던 왕년의 액션 스타 릭 달튼과 그의 스텐트 배우 클리프 부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노력하던 중, 떠오르는 신예 배우 샤론 테이트가 그들의 옆집에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샤론 테이트란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1969년에 벌어진 실제 사건을 소재로 가져온 작품이다. TV 시리즈와 액션극 열풍, 반문화 등 시대상이 1960년대 할리우드와 결부하는 과정을 좇던 영화는 대단원에 이르러 통쾌한 대체 역사를 제시한다.



🎬 <헤일, 시저!>(2016), 조엘 코언, 이선 코언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 쿠엔틴 타란티노



(무성영화 vs. 유성영화)

1927년 최초로 유성 장편영화 <재즈 싱어>가 출현하면서 영화계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관객이 배우의 목소리를 원할까?" 보수적인 제작자들의 예측과 달리 유성영화 도입은 여느 신기술처럼 급속도로 이뤄졌다. 배우에게 풍부한 표정 연기와 몸놀림만을 요구했던 무성영화와 달리 유성영화는 듣기 좋은 음성과 명확한 발성,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표현력까지 필요로 했다. 황금빛 고대 도시 바빌론에 할리우드를 빚댄 <바빌론>은 바로 이 시기의 풍경을 포착한다. 눈물 한 방울까지 자유자재로 흘릴 수 있는 빼어난 연기력의 소유자 넬리 라로이는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로 떠오르지만, 목청이 그리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심리 상태도 온전하지 않았던 가련한 배우가 유성영화라는 급물살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방황하는 넬리를 정서적으로 붙들어 준 동료이자 연인 매니도 끝내 그의 기구한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채 할리우드를 영영 떠난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정반대 상황을 전개한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안착한 당대 최고 스타 돈 록우드는 괴상한 목소리의 소유자인 동료 인기 배우 리나를 제쳐 두고 안무와 가창이 훌륭한 무명 배우 캐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연인이 된 돈과 캐시는 친구 코스모와 의기투합해 개봉이 미뤄진 영화를 뮤지컬 영화로 각색, 큰 성공을 거둔다. 사랑의 기쁨이 춤과 노래를 타고 흘러 영화라는 마법을 이룬다.



🎬 <바빌론>(2022), 데이미언 셔젤

🎬 <사랑은 비를 타고>(1952), 스탠리 도넌, 진 켈리





머물고 싶은 해양 도시, 거제

경남 거제의 11월은 참만하다. 사면을 감싼 쪽빛 바다가 눈부시고, 청정한 거제 해역에서 난 굴이 제철이다.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는 박종우 시장에게 여행 길잡이를 청했다.



Q. 평상시 '거제 사랑꾼'을 자처할 정도로 지역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거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이겠죠. 거제를 소개해 주세요. A. 수려한 자연과 역사적 의미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거제를 대한민국 여행 1번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군사적으로 중요했기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끈 옥포대첩도 거제 옥포 앞바다에서 벌어졌답니다. 따뜻한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은 6·25전쟁 때 흥남 철수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장승포항에 닿은 피란민들을 포용해 살 곳과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거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16개 해수욕장과 11대 명산이 있을 정도로 자연환경도 뛰어납니다. 2024년 개장을 앞둔 거제 치유의 숲이 완성되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여행지로 더욱 주목받으리라 자신합니다.

Q. 문화·관광 산업 육성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여러 축제도 진행하지요? A.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제 섬꽃 축제를 펼칩니다. 난지 농업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시작한 이 축제는 올해 17회를 맞으며 거제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2월은 한층 풍성해집니다. 우선 거제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대구를 활용해 거제대구수산물축제를 외포항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풍어 및 만산 기원제, 대구 수산물 현장 경매, 대구 떡국 나눔 행사 등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에는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장승포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희망을 빌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Q. 거제를 가 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A. 거제는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천혜의 자연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

해 질 무렵 장승포항에 들러 장승포 기적의 길과 송구영신 소망길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노을 지는 항구 풍경을 감상한 뒤 소망길의 달 조명 앞에서 소망을 속삭여 보세요.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은 기대를 모으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거제는 풍부한 해양 레저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려 합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것은 물론 지역성이 드러나는 대표 음식 발굴 등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 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사면이 바다인 거제는 섬 안의 섬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거제의 섬을 자랑해주세요. A. 거제1경으로 꼽는 해금강부터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다의 금강산이라는 뜻을 지닌 해금강의 바위는 수억 년의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에 씻겨 갖가지 모습을 연출합니다. 사자바위, 미륵바위, 촛대바위, 신랑바위, 신부바위 등 이름도 재미나지요. 거제에서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된 내도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트레킹 코스의 황홀한 경치에 반하실 거예요. 가조연륙교 해안선을 따라 드라이브하며 입도하는 가조도의 노을 풍경도 절경입니다. 그 외에도 특색 있는 비경을 지닌 부속 섬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섬 안의 섬으로 떠나다 좋겠습니다.

Q. 여행에서 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어울릴까요? A. 청정한 거제 해역에서 잡히는 굴과 대구로 만든 음식들이 알맞겠습니다. 거제9품에 속하는 두 특산품은 날이 추울 때가 제철이거든요. 탱글탱글한 식감 뒤에 따르는 고소함이 혀를 자극하는 굴구이, 구수하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 대구탕을 먹으면 기력도 충전될 겁니다. 대구와 떡을 함께 끓인 대구떡국도 드셔 보세요. 거제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Q. 깊어 가는 가을과 다가올 겨울이면 거제 바다는 운치를 더하지요. 즐겨 찾는 장소를 거제 여행자에게 추천해 주세요. A. 산책하며 거제의 바다와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나 멋진 도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이지요. 해 질 무렵 장승포항에 들러 장승포 기적의 길과 송구영신 소망길을 연이어 걷는 건 어떨까요. 장승포 기적의 길은 흥남 철수와 거제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했고, 송구영신 소망길은 장승이 있던 포구라 해서 장승포란 이름이 붙은 이 마을을 기억하는 동시에 수호신인 장승에게 소망을 빈다는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노을 지는 항구 풍경을 감상한 뒤 소망길의 달 조명 앞에서 소망을 속삭여 보세요.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이 계절, 참만하고 아름다운 거제의 풍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PHOTO PICK 거제 여기서 한 컷

@geoje_geojesi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는 지금 여기는 외도 보타니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식물원! 다양한 아열대식물을 완상하며 산책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거제 #거제여행 #거제섬 #거제섬여행 #외도 #외도보타니아 #지중해느낌 #유럽정원 #거제여행코스 #구조라항 #지세포항 #외도보타니아입도

안전총괄본부 환경경영처 한국철도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만드는 사람들

환경 업무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안전총괄본부 환경경영처 구성원들에게 한국철도가 꿈꾸는 친환경 철도 이야기를 들었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성해 차장, 이수연 대리, 최문석 대리, 서성민 대리, 이윤호 대리, 신영국 대리, 박두병 대리, 김문석 부장, 권평수 처장, 봉상영 부장, 김윤식 대리



Q. 한국철도 안전총괄본부 환경경영처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철도는 고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 서비스업이기에 열차 운영과 검수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인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물과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는 환경경영처를 발족해 환경법으로 정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예측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차량 실내 공기 질과 소음도 관리하고요. 11명이 뚝뚝 뚝뚝 환경경영처는 이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탄소발자국과 탄소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한국철도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 분야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Q. 환경과 관련해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데, ESG 경영이 이슈가 되면서 신설한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A.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역사가 긴 조직입니다. 1994년 환경계로 시작해 환경관리과, 품질환경과, 환경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가치를 둘러싼 환경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는 변함없습니다. 현재는 기획부와 운영부 두 부서로 환경경영처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획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래권, 신재생에너지 관리, 녹색 제품 구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업무 등 환경 분야 기획을 이끍니다. 기차 및 역사 환경 개선과 밀접한 운영부는 기차가 달리고 역에 정차하는 모든 상황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는 대기·수질·토양을 관리하며, 폐기물과 관련 빛·소음·전자파 공해도 운영부에서 처리합니다.

Q.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A. 환경 분야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기에 법령과 연관된 일을 많이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각종 환경 법안을 살피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문을 수시로 확인하지요.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해 만든 환경경영처의 환경관련 계획은 하위 조직인 안전보건처, 기술계획처, 안전기술부와 공유해 유기적으로 일합니다. 본사 조직인 환경경영처가 한국철도의 환경 업무 기틀을 다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하위 조직은 그에 맞춰 전국역사 내 시설과 차량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Q. 한국철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이행 중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실제 배출량을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만큼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환경경영처는 2021년부터 이 제도에 참여했는데, 지난해 한국철도공사는 153만 9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정부 허용 할당량 대비 49만 6000톤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디젤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탄소 저감 사업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여분의 배출권을 처분해 실현한 수익은 다시 환경 경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Q. 올해의 녹색상품도 추진하신다고요. A. 환경경영처는 매년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갱신과 올해의 녹색상품을 추진합니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올해의 녹색상품은 원료부터 생산, 소비 전 단계를 거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상품을 일컫습니다. 한국철도는 'KTX 동해선'이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돼 1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상은 소비자가 직접 뽑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거머쥐었는데, 환경경영처에 근무하며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Q. 지하역사 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A.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물질로 지정한 데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하역사에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연동해 실시간 관측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방식이지요. 바람이 불어 먼지가 분산되는 야외역사와 달리 먼지가 쌓이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지하역사의 공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하역사가 깊어 환기에 어려움이 큰 서울숲역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 공기 질 시스템 덕에 공기가 한결 맑아져 내부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66개 지하역사에 해당 시스템을 갖췄고, 공기청정기를 각각 약 10대씩 비치했습니다.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를 송출해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고객 누구나 현재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경경영처의 포부를 밝혀 주세요.

A. 한국철도가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친환경 열차를 확대하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춰 재생에너지를 자가 조달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의 친환경성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철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영처가 추천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

냉난방 기기 사용을 줄이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난방 온도를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 높여 보세요.

권평수 처장

인쇄 시 종이 사용에 주의합니다. 모아 찍기와 양면 인쇄를 택하고, 이면지를 재사용하는 것도 종이 낭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봉상영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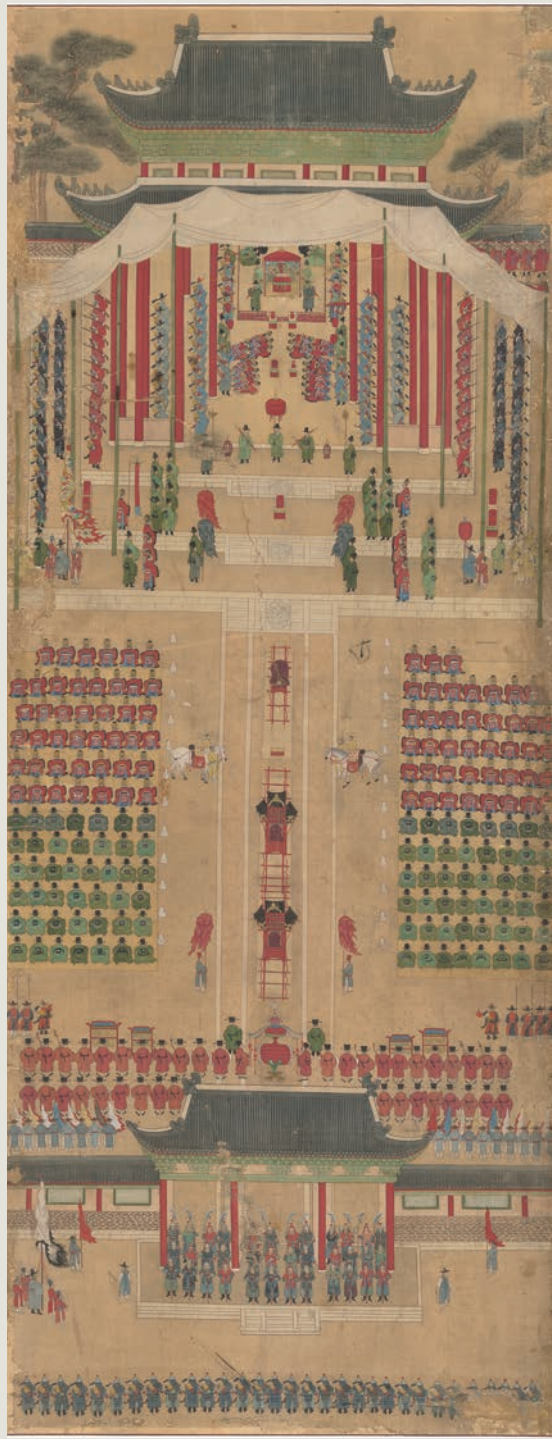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강기를 타기보다는 계단으로 걸어 다닙니다. 에너지 절감은 물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답니다.

강성해 차장

평상시 재활용품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합니다. 나아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김윤식 대리

Treasure of Korea



질서의 중심 -왕세자 탄생 진하도-

사진은 여덟 폭 병풍 가운데 셋째 폭 상단 부분이다. 그림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정연한 질서를 이루어 화면이 안정적이고 짜임새 있게 느껴진다. 흰색 차양 아래 붉은 기둥, 천막을 받치는 연두색 막대. 그 사이사이에는 호위병이 세로로 섰다. 뜰에는 신하가 줄지어 앉았고, 앞쪽에 돌계단이 가로선을 긋는다. 건물 안에서 엎드려 절하는 신하도 줄을 맞추었고, 그 위로 임금의 의자가 놓였다. 세상은 질서를 이루고 있고 중심에 왕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선명하다. 조선의 정조는 영조에 이어 탕평책을 추진했다. 왕을 중심에 두고 신하들이 질서를 지키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자는 의도였다. 병풍은 정조가 첫아들을 얻고 할머니·선친·모친께 존호를 올리는 경축 행사를 담았다.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펼치는 데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탕평평-글과 그림의 힘>전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기간은 12월 8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다.

The Center of Order - Congratulating the Birth of Crown Prince

The folding screen conveys a sense of stability and structure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forming an orderly composition. Courtiers are seated in rows in the courtyard, and stone steps cross the canvas horizontally. Those inside the building are also perfectly aligned, and the king's throne is placed above them. In the painting, King Jeongjo is celebrating the birth of his first son. *Wise and Unbiased: Royal Philosophy in Paintings and Calligraphy of the Joseon Dynasty*, which explores how art was utilized in implementing a policy of maintaining balance between factions, run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December 8 through March 10, 2024.

PUZZLE

<수학을 배우는 숨은그림찾기(자연탐구)>
다섯 종류의 숨은그림찾기가 담긴 책으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른다. 똑같이 보이는 쿠키 중에서 다르게 생긴 것을 찾고, 동을 진구가 어디 숨었는지 둘러본다. 복잡한 규칙을 풀어나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기쁨도 누린다. 아기자기한 그림 덕에 퍼즐을 풀고 나서도 자꾸만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숨에 동물 친구들과 숫자들이 함께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모두 찾아주세요.

사탕(1)을 찾아주세요.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파란 나뭇잎 6마리를 찾아봐!

왕좌에 앉은 임금과 마스코트를 찾아봐!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 1·2권

따스한 마음과 믿을 만한 눈에 전문 지식을 가진 문헌학자가 한국을 탐험했다. 머나먼 타국, 오지가 아니라도 일상의 공간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탐험의 공간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슈퍼마켓·세탁소·이발소 등 가게 간판을 도시의 화석이라, 창문의 창살 장식을 시민 예술이라 부르고 골목과 계단에 놓은 화분에서는 '불굴의 텃밭 정신'을 발견하는 그가 대한민국 곳곳을 발로 밟고 기록했다. 서울을 탐구한 전작 <서울 선언>을 읽으며 저자가 서울 밖으로도 나서 주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실한 걸음 덕분에 책 부제처럼 '남겨진 것과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기억록'이 탄생했다.
김시덕 지음 북트리거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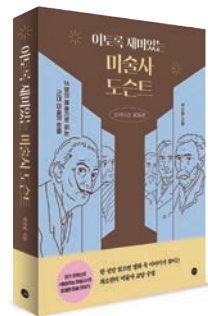
<2023 굴림추색 감굴아트전>

굴림추색이란, 제주성에 올라 잘 익은 귤을 감상하는 일을 뜻한다. 싱그럽고 달콤한 감굴은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물이자 오랜 세월 지역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어 준 고마운 특산물이다. 감굴 1000년사를 망라한 서귀포 감굴 박물관에서 다양한 예술적 도구로 감굴을 조명한 기획전은 선보인다. 사진가 전재호, 섬유 미술 작가 홍승희, 종이 조형 작가 어신, 판화 작가 남천우, 회화 작가 셸빛이 35점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감굴에 깃든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드러내고, 문화 역사적 의미를 탐색한다. 예술이 된 감굴을 맛보는 시간이다.
기간 12월 31일까지 **문의** 064-767-3010 (제주도 서귀포 감굴박물관)



<어쩌면 가장 보통의 인간>

어떻게 반응할지 여전히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장애'다. 비장애인은 장애를 모른다. 부족하나마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라 믿는다. 선천성 근위축증 장애인인 저자는 오랜 시간 세상과 단절되었다가 SF 소설을 쓰고 나서 상도 받고 인터뷰도 했다. 시상식에 갈 땐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지 걱정해야 했지만. 남들이 평범하게 보지 않아도 자신은 스스로 평범한 그의 유쾌하고 묵직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최의택 지음 교양인 펴냄**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

마크 로스코 작품 앞에서 누군가는 '폭풍 감동'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가우뚱한다. 이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중에게 미술을 친근하게 소개해 온 저자가 모네부터 마크 로스코까지 화가 14명을 들어 모더니즘 회화를 설명한다. 시민혁명이 일어나 사람들 시선이 신과 왕족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다양한 개성의 예술이 태어나는 과정, 예술가가 끊임없이 실험하고 고뇌한 과정. 책과 함께 모더니즘 미술로 다가가다. **박신영 지음 길벗 펴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림책 <이게 정말 사과일까?>에서 사과 하나로 상상력의 끝을 보여 준 그는 내놓는 책마다 통찰과 웃음, 감동을 선사하며 '믿고 읽는 작가'가 되었다. 이번엔 자신의 머릿속 90가지 생각을 꺼내 그렸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폭, 항공 승무원의 착륙 준비, 뒤집힌 우산, 감기약 포스터, 운전면허 갱신 강습을 소재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이끌어 내다니! 피식피식 웃다가 어느새 위로를 받고 있다.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이소담 옮김 김영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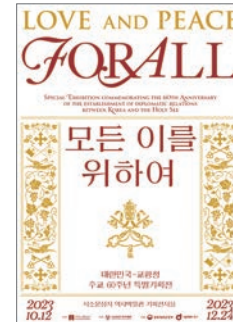
<정지현: 행도그>

행도그(handdog)는 낙담한 상태를 일컫는 형용사다. '행'과 '도그'라는 두 단어가 새로운 뜻을 자아내듯, 정지현은 사물로서 제 기능을 다한 산업폐기물을 해체하거나 재조립해 예기치 못한 결과물을 유도하는 작가다. 폐기물의 중간적 상태를 3D 스캐닝해 조각으로 가시화한 작업을 비롯, 작가의 예술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최근 3년간의 작품을 소개한다. **기간** 11월 3일~2024년 1월 21일 **문의** 02-733-8949(서울 아트선재센터)



<이것 역시 지도>

초국가적이며 초국지적인 현상이 심 없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세계를 예술로 통과한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구 지도 제작법과 측량 체계 바깥에 존재하는 움직임과 이야기, 정체성과 언어를 다각도로 펼친다. 설치, 사운드, 영상 등 여러 매체로 그려낸 지도가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다섯 곳에서 열린다. **기간** 11월 19일까지 **문의** 02-2124-8800(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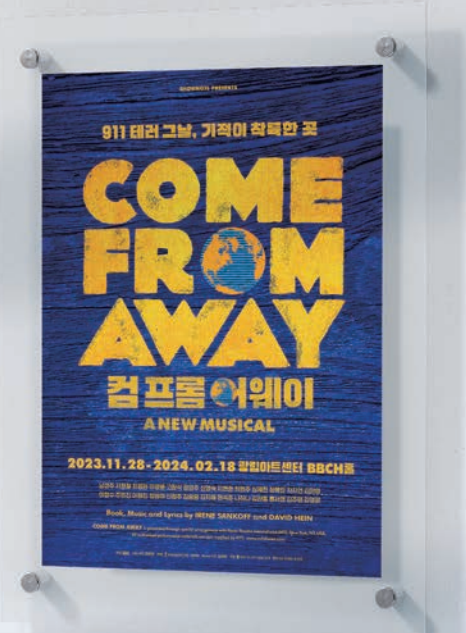
<모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교황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도착했다. 그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교황청 문서를 새로이 발굴해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게 한다. 교황청 국무원 외교부 역사문서고와 복음화부 역사문서고 등 기관의 협조를 방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데, 대한민국 승인 관련 1948년 12월 유엔총회 표결 결과지가 특히 눈길을 끈다. **기간** 12월 24일까지 **문의** 02-3147-2401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컴 프롬 어웨이>

9·11 테러 직후, 미국 영공이 폐쇄되며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캐나다에 불시착한다. 캐나다의 작은 도시 갠더에도 비행기 수십 대가 불시착한 상황. 주민들은 7000여 명의 승객과 협력한다. 9·11 테러 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이다. 캐나다 출신 작곡가 아이린 산코프, 데이비드 헤인이 원작 대본과 작곡을 맡았다. 이들은 당시 갠더를 방문, 현지인과 비행기 승객들을 직접 인터뷰해 작품을 제작했다. 모든 배우는 1인 2역 이상을 맡아 주민과 승객을 연기한다.


기간 11월 28일~2024년 2월 18일 **장소** 서울 광림아트센터 문의 02-3485-8700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

꿈을 꾸고 행할 때 나이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수영 선수 출신의 언론인 다이애나 나이애드는 60세를 맞아 마음의 속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현역 선수로 촉망받던 28세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플로리다 해협 종단을 결심한 것. 총거리만 110마일(약 177킬로미터)인 데다 상어가 출몰할 정도로 험난한 이 해협을 건너기 위해 매일 훈련한 다이애나는 도전 4년 만인 2013년, 다섯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한계를 결정하는 건 나이나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11월 3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엘리자베스 차이 베사렐리 **출연** 아네트 베닝, 조디 포스터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과 서거 80주기를 기념해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작품 번호 33번과 39번, 총 17곡을 연주한다. '회화적 연습곡'의 개별 작품은 때때로 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지만 전곡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기회는 흔치 않아 특별하다. 동일한 레퍼토리로 대구, 광주에서도 무대가 이어진다.

일시 11월 28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롯데콘서트홀 문의 1544-7744



<천년의 춤-대전>

대전시립무용단이 가무악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 준다. 국가무형문화재인 강선영류 태평무, 쇠파피와 부채를 가지고 추는 쟁강춤, 윷다리 농악 채상 소고춤, 진도북놀이, 춘앵전을 포함해 8개의 전통 춤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린다. 온고지신을 주제로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수 있다는 희망과 영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일시 11월 1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립연극극원 문의 042-270-8353



<헬렌 앤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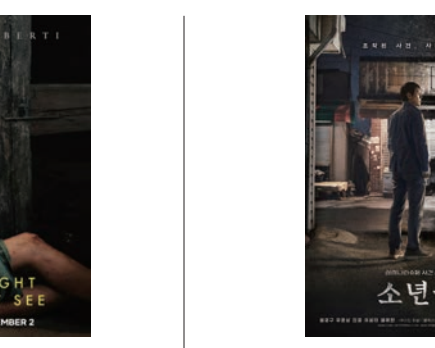
미국의 사회 운동가 헬렌 켈러와 앤 셸리번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1886년부터 사회 활동가로 성장하는 1900년대 초까지의 일화를 소재로 한다. 배리어 프리 공연으로 로비에 점자 리플릿 구비는 기본, 공연 중 음성 해설, 무대 수어 통역, LED 자막, 릴렉스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다.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가 울림을 준다.

기간 11월 18일~19일 **장소** 부산 민주공원 문의 051-790-7412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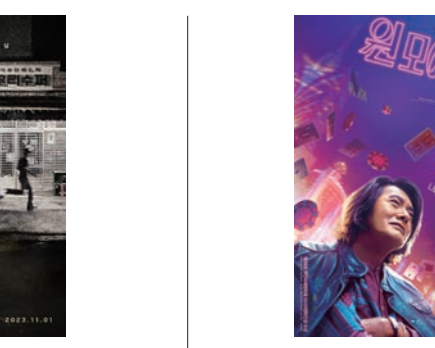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 마리로르 르 블랑은 삼촌의 집에 피신한다. 나치에 저항해 비밀리에 라디오를 송출하는 삼촌의 뜻을 따라 마리로르는 방송을 이끈다. 이를 독일군 베르너가 추적해 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쫓길 두려워하는 마리로르에 동조하고 비밀을 합구한다.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 시리즈다. 11월 2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손 레비 **출연** 아리아 미아 로베르티, 마크 러펠로



<소년들>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할머니가 사망하는데, 경찰은 사건 9일 만에 동네 소년 세 명을 용의자로 검거한 뒤 수사를 종결한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후 17년 만에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세 소년의 삶에는 주홍 글씨가 따라다닌다. 실화에 기반한 작품이 당부한다. 사건의 결말만 바라보기보다는 이면에 숨은 진실을 직시하라고. 11월 1일 개봉.

감독 정지영 **출연** 설경구, 유준상



<원모어 찬스>

타짜였던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해 매일 카지노에 들러 대박을 노리는 광휘에게 옛 여자 친구가 찾아와 그의 아들이라며 한 달간 아양을 돌봐 달라고 한다. 양육비로 내민 5만 달러에 제안을 수락한 광휘는 자폐인 아들과 티격태격하다가 정을 쌓는다. 어느덧 약속한 이별이 다가오지만 아양의 엄마가 위중한 상태를 알게 되고, 광휘는 도박꾼이 아닌 아버지로 살아가기로 한다. 11월 1일 개봉.

감독 반요명 **출연** 주윤발, 원영의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예술이 그린 섬, 신안

<KTX매거진> 10월호 전남 신안 기사를 보고 무한의 다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혼자서 여행을 다녀왔지요.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좋은 여행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옥희 대전시 서구 청사로



산책하고 사색하다, 의릉

'기차 타고' 서울 의릉 여행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그동안 몰랐던 조선 경종의 왕릉인 의릉!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 친구와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하렵니다.

이병준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11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KTX를 타고 강원도 동해로 혼자 두박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비가 내려 속상했는데, 흐린 날임에도 추암해변의 촛대바위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살면서 두고두고 기억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송영현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아리아리 스리스리'



- 090
코레일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NEWS



ALL THAT KORAIL SERVICE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수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월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은 코레일-SR 통합 등 의원들의 주요 쟁점 사항 질의에 답변했다.

매달 마지막 주말엔 기차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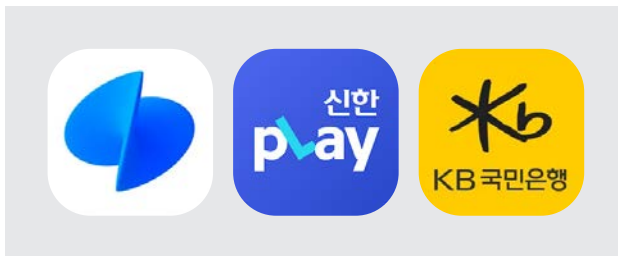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2월까지 '여행이 있는 주말에' 캠페인을 추진한다. 매달 마지막 주 금·토·일요일에 주말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달마다 여행 테마를 새롭게 바꿔 내용을 예정이다. 11월은 야간 여행을 주제로 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부정 승차 연말까지 강력 단속



올바른 철도 여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연말까지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부정 승차가 잦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편리해진 승차권 예매



이제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한국철도공사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세 개의 앱 중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기차 예매 서비스를 이용해 좌석 선택과 결제까지 손쉽게 마친다.

기다릴 필요 없는 빠른 출차

코레일톡으로 주차요금 사전정산 하세요!

키오스크, 출구 정산기, 이제 코레일톡에서도!
더욱 쉽고 편리한 모바일 결제로 정산기 앞에 줄서지 말고 바로 출차하세요

코레일톡으로 미리 정산하는 주차 요금 정산기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 대폭 감소

주차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산기 앞에 줄 서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철도공사가 9월 25일부터 전국 60개 역 75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코레일톡 주차 요금 사전 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코레일톡 승차권 이용 고객은 주차장 내 정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차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요금 정산을 마친 차량에 탑승해 곧장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사전 정산 방법은 코레일톡 승차권 확인 화면에서

'부가 정보 → 도착역 선택 → 주차 요금 정산' 메뉴를 누른 뒤,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차 요금은 입차 시 각부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 시각 기준으로 자동 산정한다. 단, 30분 초과 시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정산해야 하니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철도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에서 받고 있다.

MERRY ITX-MAS



전국 스토리웨이
11월중 출시!

기차와 스토리웨이 브릭
조립의 재미를 동시에!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동생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밤 10시쯤 양평역에 도착한다는 말에 온 가족이 집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되어도 동생이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족 모두 양평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의 좌석 번호도 모른 채 역무실로 가서 기차에 동생이 탔는지 확인해 달라고 다급히 요청했고, 역무원님은 해당 기차의 열차팀장님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덕에 잠들었던 동생을 깨우고, 돌아오는 열차 시각까지 알려 주셔서 무사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웠을 텐데 저희 상황을 귀담아듣고 같이 걱정해 주신 역무원님, 동생을 찾는 내내 불안했던 저희 가족을 안심시키고 찾아서 다행이라며 웃어 주시던 역무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친절하고 웃음으로 응대해 주시는 양평역 모든 직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양평역 역무원

늦은 밤 고객님 일행이 급하게 역무실로 와서 동생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동생은 감감무소식이고, 좌석 번호도 모르신다는 말씀에 우선 마음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 인상착의 등 정보를 정리해 열차팀장님께 확인을 요청했지요. 잠깐이었지만 가족분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역무실에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따뜻한 물을 건네며 상황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고객님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해 주신 덕에 저희가 오히려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잇는 한국철도' 직원이 되겠습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해외로 나가는 가장 빠른길

KTX - 공항버스

광명역에서 27인승 공항버스를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6770번) 운행노선도



KTX 공항버스(6770번) 운임

- 광명역 - 인천공항(T1,T2) : 15,000원
- 인천공항(T1,T2) - 송도국제교 : 8,000원
- 송도국제교 - 광명역 : 7,000원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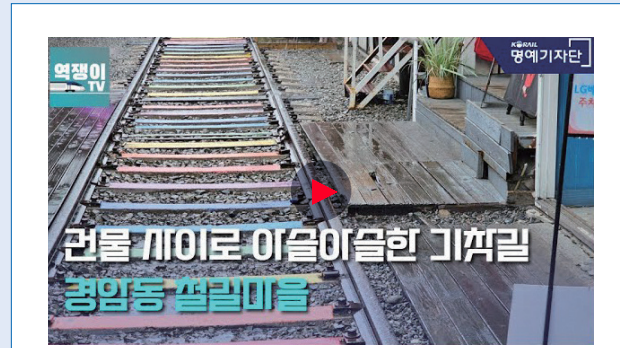
- 광명역 → 인천공항행 : 전국 철도역, 코레일톡 모바일 앱에서 구입 가능
- 인천공항 → 광명역행 : 인천공항 매표창구, 티머니 go 모바일 앱에서 구입 가능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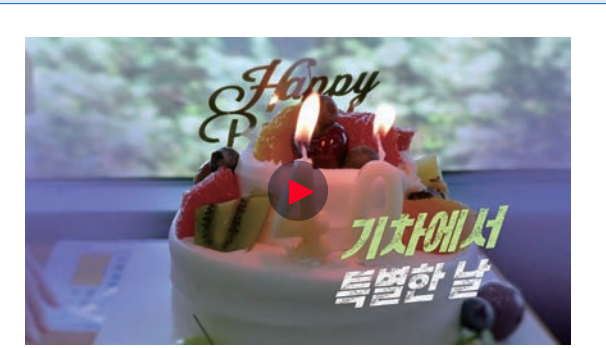
- 송도 국제교는 광명행인 경우에만 정차합니다. (인천공항행 무정차)
- 어린이의 경우, 운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 운행 간격은 약 20~40분이며, 교통상황에 따라 운행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항버스는 도착한 고객 순서대로 탑승하는 자유식으로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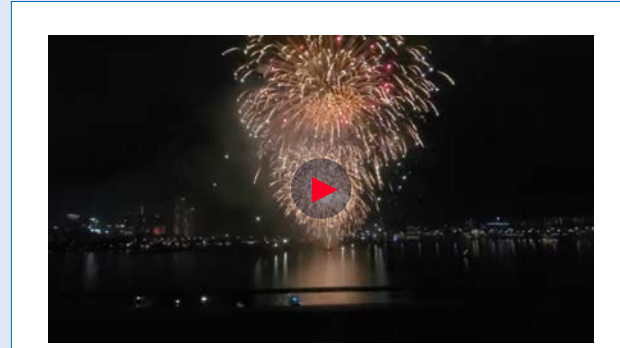
KORAIL SNS



건물 사이로 아슬아슬한 기차길! 경남동 철길마을. 전북 군산에 독특한 모습의 기차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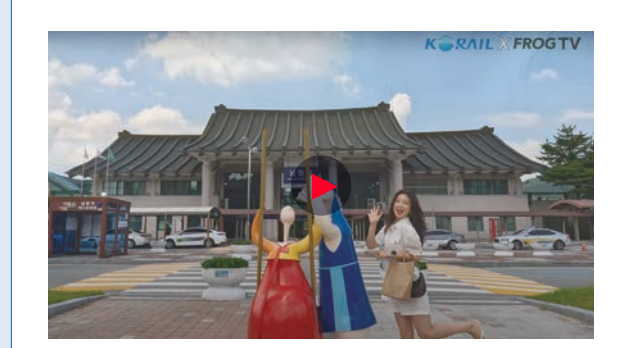
기차에서 특별한 날_홍 많은 '홍 부자'는 여기로 오세요. 기차 타고 와인 여행! 국악와인열차와 대전국제와인엑스포를 즐겨요.



한강철교를 지나는 KTX에서 바라본 서울세계불꽃축제_서울 용산~노량진 구간 한강철교에서 본 불꽃축제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미디어 속 한국철도_드라마 <D.P. 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한 TV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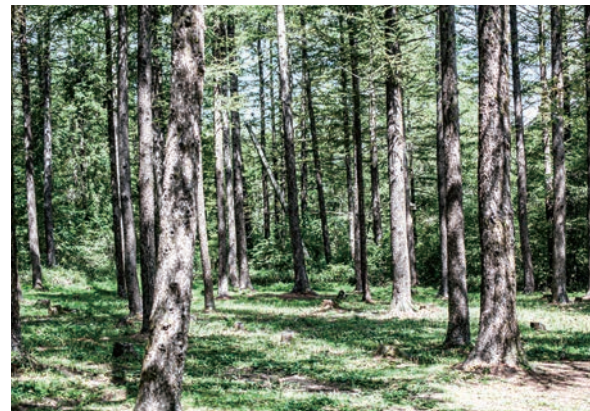
KTX 타고 떠나는 춘향의 도시 남원_고전소설의 배경이 그대로! 사랑과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전북 남원으로 떠나보세요.



코레일, 수도권 전철 운임 조정과 함께 달라지는 것들_수도권 전철 기본 운임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을 걷다, 운탄고도 1330

평균 고도 546미터, 최고 높이 1330미터, 총길이 173.2킬로미터. 트레킹 코스인 '운탄고도 1330'을 숫자로 푼 것이다. 길은 단종의 님이 서린 영월 청령포에서 시작해 높이 1330미터의 정선 만항재, 탄광에서 석탄 캐던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태백을 지나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어진다. 코스는 아홉 개로 나뉜다. 고씨동굴, 타임캡슐공원, 황지연못, 까막동네 등의 여행지와 강원도의 청정한 산림, 야생화 군락지, 옛 탄광의 흔적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걷기만 해도 다

채로운 여행이 된다. 산행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다. 많이 높지 않고,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걸어도 좋기 때문이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고원의 길'이라는 뜻의 이름답게 여기서 만나는 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이다. 운탄고도에 쉽게 당도록 도와 주는 열차 연계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네 지역을 알차게 돌아볼 기회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자.

운탄고도 열차 연계 여행 상품



01 태백
'한국의 산티아고'라는 별명을 가진 태백 운탄고도 6길을 둘러본다. 미국적인 자작나무 숲과 청정 고원인 태백을 만끽하는 여행이다. 낙동강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연못과 황지자유시장,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365세이프타운도 찾는다. 볼거리는 기본, 체험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여행 일정(20인 이상 출발, 매주 토·일요일 운행)
왕편 무궁화호(청량리역 07:34 출발 → 태백역 11:16 도착)
일정 황지자유시장(중식) → 지지리골 자작나무 숲(6길) → 365세이프타운
복편 무궁화호(태백역 19:25 출발 → 청량리역 22:40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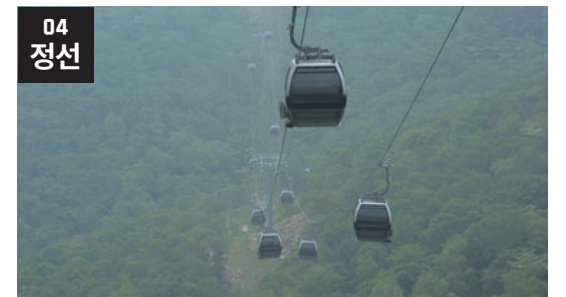
02 삼척
코발트빛 동해를 품은 운탄고도 9길, 삼척 구간은 유일하게 바다가 보인다. 여행은 신선이 노닐었다 전하는 동해의 무릉계곡부터 시작한다. 삼척해변에서 맛있는 식사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누리 후에 동해안의 온갖 해양 특산품이 모이는 동해 묵호항으로 이동해 시장 구경을 하고 식도락 여행도 즐긴다.

여행 일정(20인 이상 출발, 매주 토·일요일 운행)
왕편 KTX-이음(서울역 07:01 출발 → 동해역 09:42 도착)
일정 무릉계곡 → 삼척해변 카페 거리(중식) → 소망의탑 전망대(9길) → 묵호항
복편 KTX-이음(묵호역 19:10 출발 → 서울역 21:46 도착)



03 영월
산길을 따라 운동하듯 가볍게 올라가면 자연이 만들어 낸 신비한 한반도지형과 만난다. 운탄고도 시작점인 영월 청령포의 운치는 또 어떤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남한강 상류인 서강이 애처롭고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부시장을 방문해 현지의 손맛을 마음껏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한다.

여행 일정(20인 이상 출발, 매주 토·일요일 운행)
왕편 무궁화호(청량리역 07:34 출발 → 영월역 10:04 도착)
일정 한반도지형 전망대 → 다슬기국밥(중식) → 청령포(1길) → 서부시장
복편 무궁화호(영월역 17:44 출발 → 청량리역 20:05 도착)



04 정선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등산해 숲의 정취에 빠진다. 정선에 자리한 운탄고도 5길은 청정한 산림이 특징인 트레킹 코스다. 두 발로 자연을 느껴 본 후에 곤돌라를 타고 하늘 아래에서 정선의 아름다운 산세와 풍경을 두 눈 가득 담는다. 강원의 생기 넘치는 산림이 기억에 소중히 새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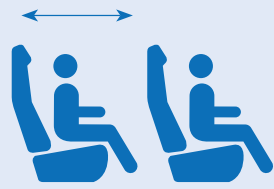
여행 일정(20인 이상 출발, 매주 토·일요일 운행)
왕편 무궁화호(청량리역 07:34 출발 → 사북역 10:55 도착)
일정 육회비빔밥(중식) → 운탄고도 5길 → 하이원스카이곤돌라 → 석식
복편 무궁화호(고한역 19:40 출발 → 청량리역 22:40 도착)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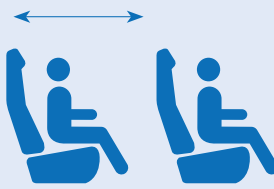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료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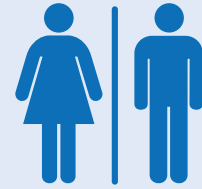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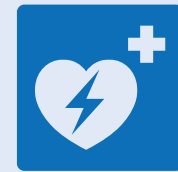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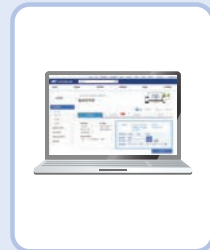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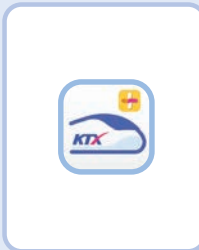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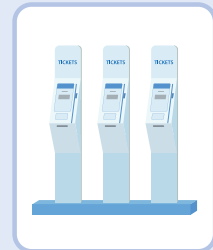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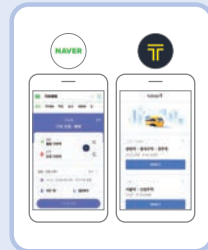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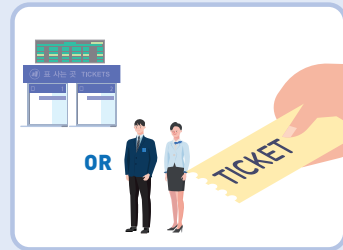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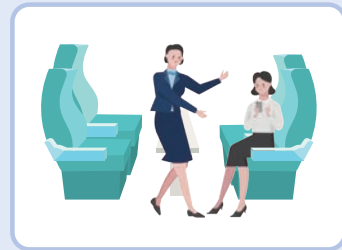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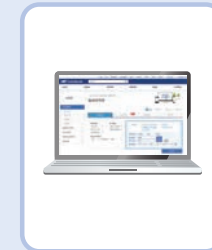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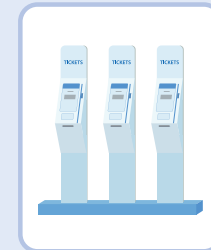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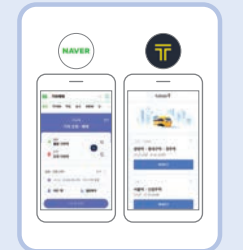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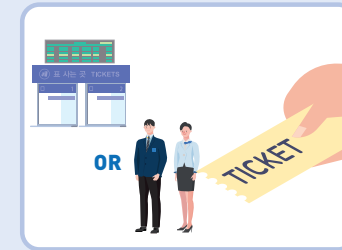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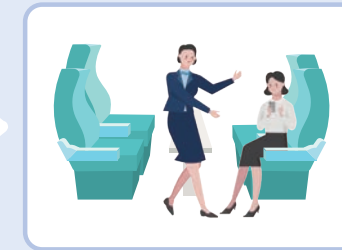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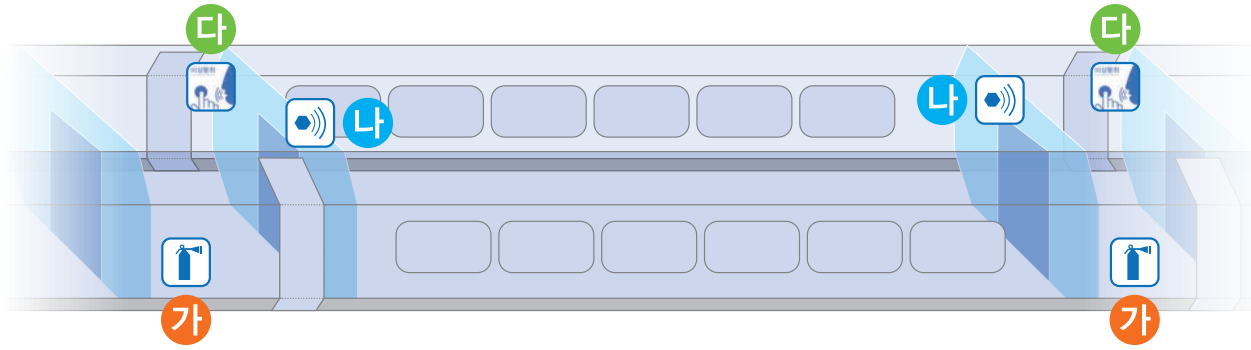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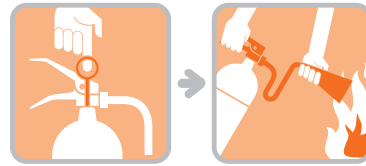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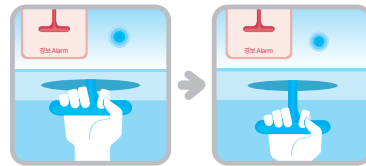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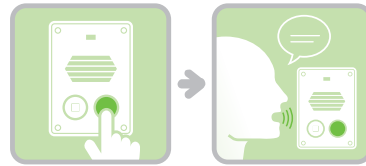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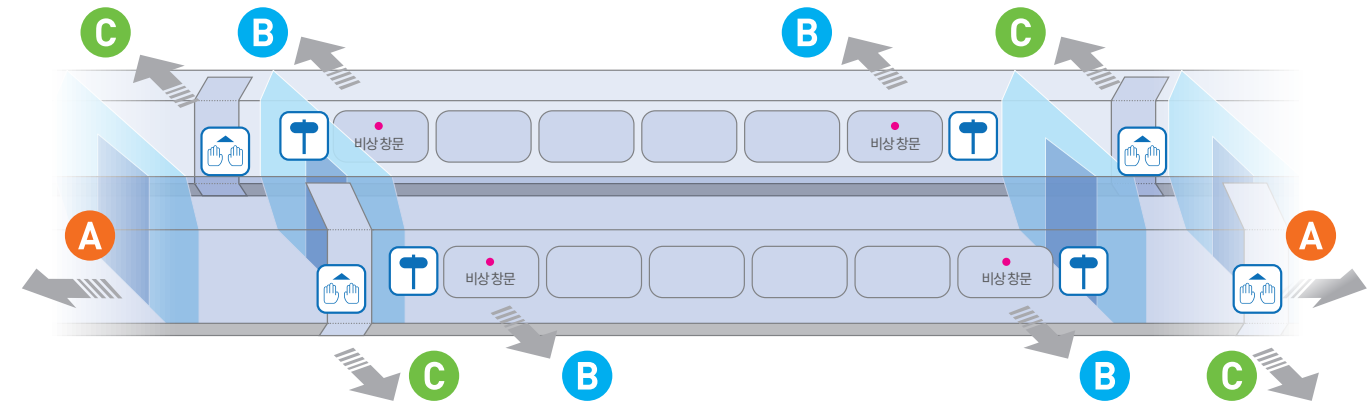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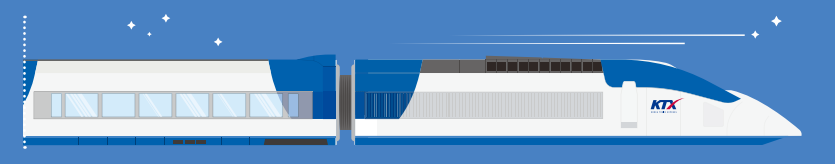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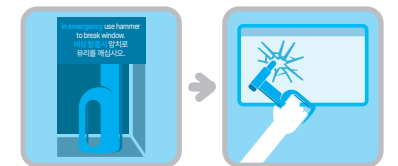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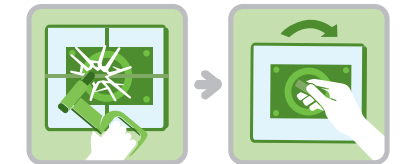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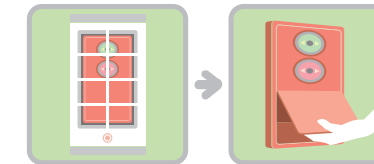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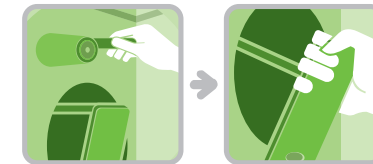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전쟁은 전설로

인터넷 서점에서 가끔 '올리버 섹스'라고 쳐 본다. 2015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검색한다. 신영복, 오주석, 황현산 선생님도 그렇게 그냥 검색한다. 빛나는 문장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책을 남기신 분들. 올리버 섹스의 의학 에세이 덕분에 뇌라는 세계에 발을 디뎠다. 전문가의 호기심과 열정, 뇌질환 환자를 설명할 때 묻어나는 따뜻한 휴머니즘. 책을 읽으면 진료실에 마주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책을 계속 내셨고 나는 죽죽 읽었지만, 나는 살아 있는데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새 책이 없다. 신영복, 오주석, 황현산 선생님도. 죽음이란 더 이상 책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 경험, 꿈을 영원히 모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책이 아니라도 생명은 무조건 소중하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사망자, 부상자, 난민의 생각, 경험, 꿈. 전쟁을 멈춰 주세요. **김현정**

이태원 프리덤

어른이 되면 이태원에 가 보고 싶었다. 서울 서쪽에서 나고 자란 착한 아이에게 이태원은 미담의, 미지의 세계였다. 배나무가 많이 자라는 여관이란 의미라던가, 외국인들 뜻하는 '이태인'에서 유래했다던가. 사실 어원이 궁금하진 않았다. 그저 이태원이란 지명에 깃든 화려함과 반짝임, 낯설고 이질감에 끌렸다. 2000년대 중반, 그렇게 이태원에 첫발을 디뎠다.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으로 이어진 거리엔 고가 브랜드 모조품을 취급하는 호객꾼이 즐비했다. 이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흥분이 됐다.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고 이태원 지하상가를 구경하다 블라우스를 한 벌 샀는데, 고작 그러고는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열추 15년이 흐른 지금, 갤러리 아마도예술공간에 들렀다가 그 시절이 문득 생각나서 기분이 묘했다. 멋과 흥을 아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부디 오래도록 건강했으면 좋겠다. **강은주**

먹는 행복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씹기가 귀찮아서 마시는 게 낫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이게 바로 행복'이란 광고 카페에 고개를 주억거리던 저입니다. 제 식성이 남다르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번 달 '테마 여행' 취재차 방문한 경남 거제에서 굴구이를 야무지게 먹었을 뿐 아니라, 이영란 전 <KTX 매거진> 편집국장이자 현 갤러리 단정 대표님이 사 주신 해물찜 앞에서 젓가락질을 쉬지 않았습니다. 조개껍데기가 산을 이뤘고, 다들 손을 내젓던 낙지 머리까지 독식했죠.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먹은 게 확실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훌륭한 먹보구나. 괜찮아요, 행복하니까. 추운 날엔 먹을 게 더 많답니다. 거제 대구탕 생각에, 휴, 군침 도네요! **육송이**



아무튼 가을

1. 제가 첨부한 사진을 봐 주세요. 무엇일까요? 오리 같기도, 닭 같기도 한 클레이 작품인데요. 정답은 '자기 앞에 놓인 사과, 감, 복숭아를 먹으려고 하는 병아리'입니다. 가을을 맞아 초등학교생인 막넛동생이 학교에서 만든 것이랍니다. 저걸 보고 "병아리인데 벼이 왜 있어?"라고 했다가 동심을 깨는 말이라며 한소리 들었어요. 하지만 병아리는 벼가 없다고요! 그래도 멋진 작품이지요? 막넛동생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2. 긴 연휴의 여파일까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경북 상주로 향한 날, 백화산 풍경을 마주하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김혜진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설명 덕에 신나게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이면 상주가 문득 떠오를 것 같아요. **남혜림**

Puzzle

83쪽 '퍼즐' 정답



LUMINOVAION



루미노베이션 뮤즈
배우 심이영

마침내 완성하다 나의 BEAUTY CLIMAX

루미노베이션은 독자적인 글리코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술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피부를 완성 시켜줍니다

